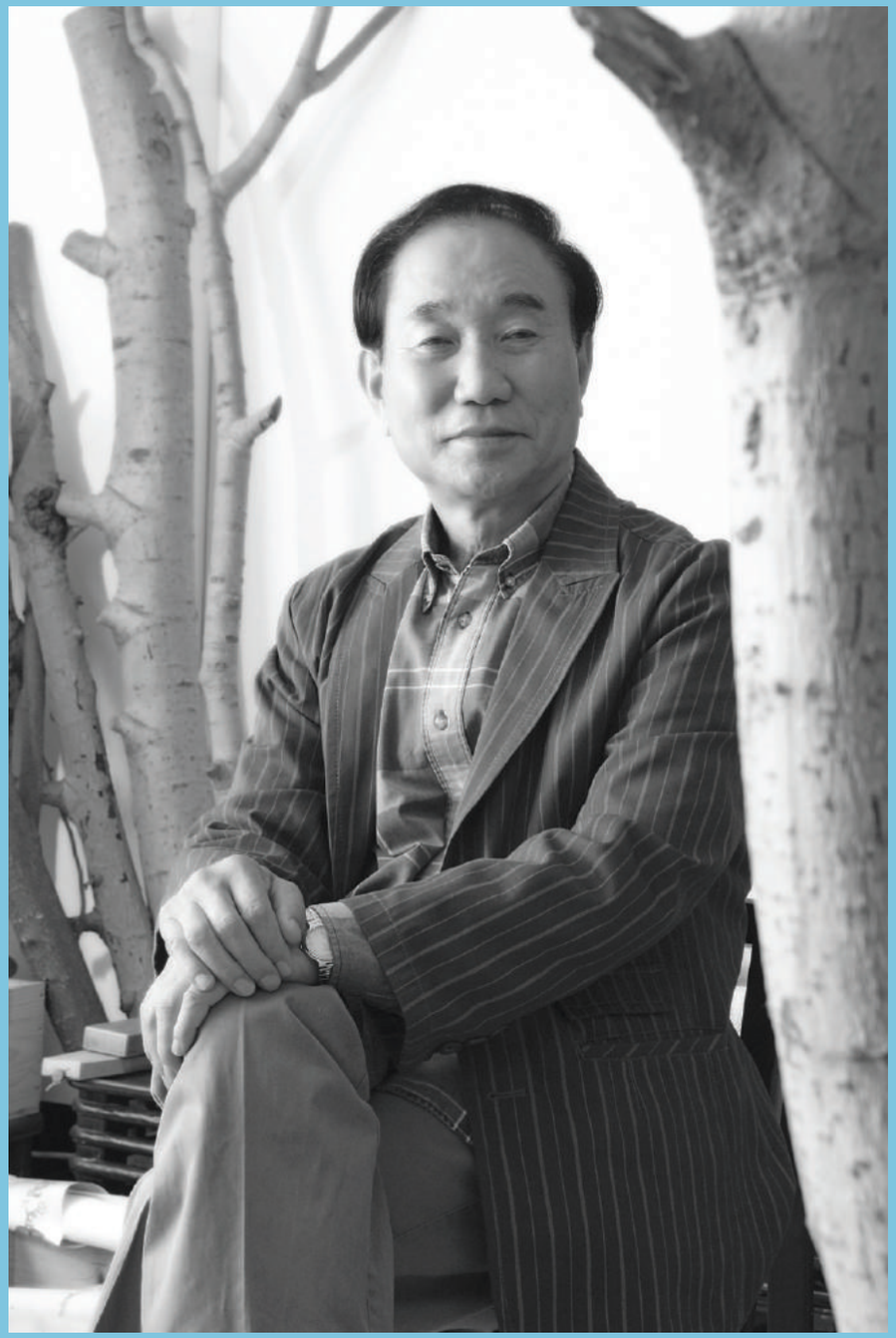
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On which planet can we meet again?

| 강 석 진 시화집 |

문학세계 출판부



강석진(姜錫珍)

Kang, Suk-Jean

학 력

중앙대학교 경제학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공업경영학 석사
네덜란드 트웬테대학 경영학 박사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ISMP)
GE 고위경영자 과정(Executive Development Course)
프린스턴대학교 글로벌경영자 과정(International Management Program)

수 상

국제문화예술협회 허균문학상 시 부문 금상
한국신문예협회 무원문학상 시 부문 본상
제9회 세계문학상 시 부문 대상
대한민국 경영자 대상
글로벌 경영자 대상
안중근 의사상

문화예술 부문 활동

• **등단**
월간 『문학세계』 등단(2006년)

• **현직**
(사)세계문인협회 부이사장
(사)세계미술문화진흥협회 이사장
한 · 일서양화교류회 회장
한국신미술회 부회장
한국미술협회, 신작전미술회, 영토회 회원

• **전시**

1996~2015 | 한국미술협회 회원전
1996~2015 | 한국신미술회 회원전
1996~2015 | 신작전미술회 회원전
1996~2011 | 한국명사미술전
1996~2011 | 한–일 서양화 교류전(서울, Yokohama 시립미술관)
1999~2015 | 대한민국회화제
2006~2010 | 월드아티스트 페스티벌(예술의 전당)
2003~2005 | 서울국제미술제
1997 | 현대구상작가70人의 200호전
2000 | 한–러시아 서양화교류전(모스코바)
2001 | 프랑스 싸롱비올렛트 초대전
2002 | 프랑스 쇼몽 초대전
2003 | 이태리 리엣떼 국제미술전
2004 | 프랑스 싸롱 · 도똔느 초대전
2007 | 한–불작가 초대전(선화랑)
2008 | MANE전(한국–중국–러시아–일본 작가 초대전)
2009 | 미국 뉴욕 KCC갤러리 초대전
2010 | G20 월드아티스트 페스티벌(서울갤러리)
2011 | 토론토 한–캐나다 신미술회전
2014 | 일본 국제현대미술가협회 초대전(동경도 미술관)

대외 부문 활동

• **현직**

CEO Consulting Group 회장
한국전문경영인(CEO)학회 이사장
세계와이크시티연맹 이사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고문
인간개발연구원 부회장
미국 Olympus Capital 금융회사 수석고문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네덜란드 University of Twente, TSM 경영대학원 국제담당 이사

• **전직**

GE Korea 회장
한국 CEO포럼 회장
아시아–유럽 미래학회 이사장
한국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정부 산하 23개 연구기관 총괄)
한국능률협회 부회장 겸 경영품질위원회 위원장
세계지식포럼 추진위원
정부개혁 경영진단조정위원회 경제행정분과 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 개발위원
교육인적자원부 21세기 지식 한국(BK21) 추진위원
청렴국가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국무조정실 정부혁신 자문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
우리금융그룹 사외이사
LG전자 사외이사

저 서

시화집『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역서『GE혁명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라』『GE 신화의 비밀』
『잭 웰치와 GE방식』『GE Work–Out』 외 다수

자연의 친구들과 마음을 함께해온 시인의 생각을 담은 시화집

오랜 세월을 전문경영인으로 활동을 해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로서 아름다운 자연의 순수한 모습과 대자연의 깊은 마음을 미술 작품에 표현하기 위해 열정을 쏟아온 나의 작품 활동은 그 무엇보다도 내게 소중했으며, 나 자신을 언제나 넓은 우주의 마음과 대자연의 따뜻한 품 안에 있게 해주었다.

넓은 대자연과 함께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들의 넓은 마음, 따뜻한 자연의 품 안에서 살아오고 있는 우리네 사람들의 소박한 삶의 향기를 화폭에 담는 동안 나는 자연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새 그들과 마음의 친구가 되었다.

오랜 세월 넓은 대자연의 풍경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부감 구도의 표현 방식으로 자연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온 작품 활동을 해오면서 자연의 친구들과 함께 나눈 마음의 대화들을 화가의 작가 노트로 기록을 해왔다. 아침과 석양의 산행 길에서 언제나 만나는 나의 자연의 친구들, 나무들과 산새들, 산벌레들, 이들과의 마음의 대화도 메모를 해왔었다. 이러한 마음의 메모들이 모여 언젠가 나만의 시세계가 되었다.

자연과 함께 나눈 마음의 대화들이 담긴 이야기들을 한국의 문학계에서 인정하여 수상한 제9회 〈세계문학상〉 시 부문 대상을 비롯한 소중한 문학상들은 시의 주인공들인 자연의 친구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상들이다. 이러한 시를 모아 이번에 처음으로 발간한 나의 시화집 발행의 기쁨도 내 마음의 친구들이며 시의 주인공들인 자연의 친구들과 함께하려고 한다.

수많은 별들 중에서 아름다운 푸른 산과 녹색의 들판과 하늘과 바다와 구름이 있고, 시냇물과 강이 흐르고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지구별에 오게 된 것을 나는 늘 감사하게 생각했다. 이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 우주의 모든 질서를 지배하시는 그분이 나를 이 아름다운 지구별에 오게 하셨다고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왔었다. 경영을 해오면서, 한편으로는 화가로서 이 지구별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소박한 사람들의 정겨운 모습들을 화폭에 담는 데 모든 정성을 쏟아왔다.

언젠가 이 세상에서의 때가 끝나고 내가 왔던 별로 돌아가야 할 때, 이 아름다운 지구별에 와서 내 마음의 친구인 자연과 함께하면서 내가 손수 그린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들과 그들과의 마음의 대화를 담은 이 시화집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떠나게 될 것이다.

이번 시화집 『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의 출간은 나와 자연의 내 친구들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2015년 12월

강 석 진

내가 두고 온 산하(山河)

나는 그림을 그립니다
가슴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립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 세상에 왔다가 돌아간 흔적을 친구들에게 남기고
이 세상의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간직하고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산과 들과 그 속의 나무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바뀌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과 색깔들
모를 심은 무논과 산자락의 밭이랑들
그 속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사람들
그들의 소박한 삶의 내음새

먼 산자락 굽이 어디에선가
뻐꾸기 소리와 함께 들려올 것만 같은
삶의 슬픔과 기쁨이 묻어 있는 애환의 가락들
슬픔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의 소박한 웃음
이 세상 모든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그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들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그들을 뜨거운 애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깊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노라면
문득 눈물이 고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서의 때가 끝나고
내가 왔던 별로 돌아가야 할 때

나는 이 지구별에서의 아름다운 추억과
이 땅에서 함께 살았던 그들의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내 손수 그린 화집 속에 담아 떠날 것입니다

먼 훗날 어느 먼 별에서
나는 내가 살아온 별 두고 온 산하를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나는 그림을 그립니다

The mountains and rivers I left behind

I draw a picture
I draw a picture with my heart
I draw the beautiful features of everything on this land

I draw to
leave my traces on this world to my friends
to remember the lovely scenery of this world
and leave with its memory

The mountains and the fields and the trees with it
spring summer autumn winter
the beautiful scenery and colors that change with season
sprouting rice paddies and furrows on mountain sides
the people who work and live there
fragrance of their peaceful lives

Somewhere along the mountain ridges
where joy and sadness of life seems to drift with
bird song melodies
smiles of people who hide their sadness
I wish to draw the lovely images of this world

This world is beautiful
I gaze upon them with my warm heart
When I see them with the eye from my deepest heart
tears come to me

When my time in this world is over
When I have to return to the star I came from

I will leave and take the beautiful memories from this earth
lovely people who lived with me
in the paintings I drew

Far in some distant day
I will miss the mountains and the rivers and the star
I lived
For that moment
I draw

자연과의 교감이 풍성한 시의 향기로

문학박사 · 초대 문화부 장관 ▲ 이어령

세계화 경영의 성공적인 전문경영인으로서, 또한 활발한 작품 활동을 국내외에서 해온 미술계의 중진 화가로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온 강석진 이사장을 오랜 시간 가까이서 지켜볼 수가 있었다.

넓은 대자연을 표현한 그의 독특한 미술 작품 세계는 감동적이었으며, 그의 풍경화 작품 속에서 대자연의 살아 있는 생명과 정신세계를 느낄 수가 있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넓은 대자연의 모습을 독특한 부감구도 방식으로 표현한 그의 미술 작품 속에는 자연과 작가가 마음으로 소통해 온 시적인 향기를 느낄 수가 있었다. 자연은 그에게 항상 가까이 있는 마음의 친구였다.

그가 자연의 모습을 화폭에 그리며 자연과 나눈 마음의 대화를 메모한 화가의 작가 노트와 자연을 마음의 친구로 생각하면서 일상의 생활에서 자연의 친구들과 나눈 마음의 대화를 기록한 것들이 그만의 독특한 아름다운 시가 되었으니, 시인으로 문단에 등단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자연과 마음으로 나눈 대화를 드러낸 순수한 시세계가 훌륭한 평가를 받아 〈허균문학상〉과 〈세계문학상〉에서 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대자연을 마음의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마음의 대화를 해온 그만의 시세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강석진 화가이자 시인은 독특한 우주관과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초능력의 창조주를 종교를 초월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우주와 대자연 속의 하나라고 받아들이는 그 정신이 이번에 출간하는 그의 시화집 『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속의 시와 미술 작품들에 표현되어 있다.

이번에 출간하는 강석진의 시화집에 담긴 시와 미술 작품 세계가 우리 인간이 우주와 자연의 품 안에서 함께하면서 자연과 소통하는 열린 정신세계를 보여 주게 되기를 기대한다.

순수한 언어로 빛나는 서정의 세계

화가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 하철경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을 맞이하여 감성 시화집 『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출간하는 시인 · 화가 강석진 회장님께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강석진 시인 · 화가는 대한민국 화단은 물론 시단에도 널리 알려져 중견 문화예술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제계에서 역시 두드러지는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고 지성과 탁월한 능력으로 만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에는 유명 CEO가 시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현재 그는 시단에서 인정받는 시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해엔 문학인들의 선망의 대상인 제9회 〈세계문학상〉 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명품 시인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그는 어쩌면 하늘이 내려준 복덕을 송두리째 받은 귀인인지도 모른다. 화단에서도 이미 뜨거운 열정을 내보이며 미술계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개인전과 각종 전시회를 통하여 화가로서의 미적 세계를 빛내고 있다.

강석진 회장은 시화집 『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서 현실에 충실한 경제인으로서의 면모를 벗어나, 시인이자 화가로서 진솔하고 순수한 감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시와 그림을 통해 보여주는 영혼의 울림은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는 동시에, 척박한 이 시대를 적셔주는 단비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서정적인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이 작품집을 통해 '강석진' 이라는 이름 석 자는 시인이자 화가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대자연을 노래한 소년 같은 심성이야말로 진정한 예술 세계로서 각광 받으리라 본다.

강석진 시인 · 화가의 작품들이 독자들의 가슴 울리는 예술의 세계가 되기를 바란다. 제목부터 우리가 함께 꿈꿀 미래에 대한 설렘을 가득 안겨주는 시화집, 『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상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한국 문단의 큰 별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최고의 절창으로 빚어낸 감성 시화집

시인 · 평론가 · (사)세계문인협회 이사장 ▲ 김 천 우

시화집『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숭고한 삶의 꽃자리에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귀한 필치들이 담겨 있다. 혹 강석진 시인 · 화가는 선택받은 귀인이 아닐까? 아니면 지구별에 내려온 어린 왕자!

강석진 시인 · 화가가 수놓아가는 순백한 언어들은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맑은 언어의 울림으로 이 시화집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행복의 바다로 항해하는 사랑의 편지 같은 설렘으로 이 시화집을 물들인 것이다.

초로에 접어들었음에도 강석진 시인 · 화가의 마음속에는 마그마처럼 끓어오르는 열정의 꽃이 피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방황하느라 시간을 보내지만, 그의 아틀리에에 켜진 영원한 꽃등은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다. 시와 그림, 악기가 그만의 향기와 어우러져 피워내는 낭만가인의 풍경들은 모두가 꿈꾸는 무릉도원과 같다.

잭 웰치가 인정한 천재적인 경영전문가인 강석진 회장, 그는 최고의 교육자로서 승승장구하며 대한민국을 빛냈다. 보통 사람들은 일생 동안 이 한 가지 역할도 하기 어려운데 시인 · 화가로까지 그 영역을 넓혔다. 시공을 초월한 인재임에 틀림없다.

그가 숨길 수 없는 예술적 끼를 발휘하여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숙명이다. 시단에 입문한 이후 강석진 시인 · 화가는 (사)세계문인협회 부이사장으로서 활동하며 문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제9회 〈세계문학상〉 시 부문에서 대상을 받아 명품 시인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본인의 그림과 함께 서정시를 담아 시화집을 탄생시켰으니 이 얼마나 축복받을 일인가!

곱게 써내려간 시화집『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출간은 메마르고 갈증 나는 이 시대에 내린 감로수 같은 선물이다. 하늘에는 별이 살고 땅에는 꽃이 살고 우리네 가슴에는 어여쁜 사랑이 모여 살아가듯이 강석진 시인의 시세계에는 따뜻한 감성의 언어들이 도란도란 모여 있다.

밤하늘의 별들에게 강석진 시인님의 별 이야기를 물어본다. 우리에게 마지막 본향으로 돌아갈 길을 알려준 지구별 시인, 강석진 시인 · 화가의 시화집 상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 시화집이 별들의 고향에서 온 사랑의 초대장을 기다리는 독자들에게 감동을 안겨 주리라 확신한다.

언제나 태양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늘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해바라기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Keep your face to the sunshine
and you can not see the shadows.
It's what the sunflowers do.

— Helen keller

1 내가 두고 온 산하(山河)

시인의 말

축하의 글 | 이어령, 하철경, 김천우

서시 | 내가 두고 온 산하(山河) _ 8

길 _ 22

아침의 산길에서 함께한 친구들 _ 24

물안개 낀 새벽의 산길에서 _ 28

구름이 되어 돌아온 나의 친구 _ 29

산길에서 만난 진달래꽃 _ 33

파아란 하늘 속 마음의 여행 _ 34

다시 만난 흰 구름 친구 _ 36

새 생명을 위해 집을 짓는 산까치 _ 40

산골짝 계곡을 흐르는 물과 나눈 이야기 _ 43

친구 바람과 함께 _ 45

들꽃, 바람 _ 48

나무들과의 이야기 _ 49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 _ 52

하늘에서 바라보는 대지 _ 54

비 오는 산길에서 _ 56

2 눈을 감고 바라보는 세상

이른 봄 새벽의 산길에서 _ 58

미지의 마을을 향해 걷는 산길 _ 60

봄 향기 합창 소리 _ 64

서래풀 개나리꽃 봄 향기 _ 65

진달래꽃이 피어 있는 봄의 산길에서 _ 66

봄 향기 _ 67

우면산의 향기 _ 68

오랜만에 돌아온 우면산에서 _ 70

우면산 산길에서 만난 나의 친구들 _ 72

봄을 기다리며 집을 짓는 산까치 _ 75

물안개 속 진달래 _ 77

관음사 가는 계곡길에서 _ 78

자연의 품에서 기원하며 _ 80

관음사 석불 앞에서 1 _ 82

관음사 석불 앞에서 2 _ 84

눈을 감고 바라보는 세상 _ 85

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_ 88

우주의 마음에 감사하면서 _ 92

3 가을의 산 위에서

가을의 산 위에서 _ 96
인간과 자연의 소리가 하나가 되어 _ 99
늦가을 산길에서 _ 101
늦가을 산 위에 누워 _ 102
고향 둥지 찾아온 산까치 _ 104
가을 풀벌레들의 합창 _ 106
우면산 소망탑에서 _ 108
산길에서 만나는 낙엽들의 이야기 _ 109
가을의 산벌레들 합창 _ 112
가을의 은행나무 길 _ 114
덕수궁 돌담길에서 _ 116
가을 산마루에서 _ 117

4 어머니의 품 바위에서

어머니의 품 바위에서 _ 123
관악산 품 안에서 _ 125
관악산 바위에 누워서 _ 126
가을 산 풀벌레들 이별의 합창 _ 128
그들이 떠나버린 산길에서 _ 130
꿈속에 찾아오신 음악의 천사 _ 131
음악의 천사를 기다리는 기도 _ 135
봄비 내리는 밤 _ 136
어디로 가는가 _ 137
차창 밖을 스쳐가는 아름다운 세상 _ 140

5 흰 구름 아래 산마을

흰 구름 아래 산마을 _ 143
오월의 전원 _ 145
달리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_ 146
풀벌레들의 합창 _ 147
봄을 기다리는 강변길 _ 149
폴란드의 시골길을 지나며 _ 150
폴란드의 하늘 위에서 _ 152
발칸반도의 하늘을 날며 _ 153
터키의 형제들에게 _ 154
네덜란드의 기차를 타고 _ 158
이태리 토스카나 지방의 옛길을 달리며 _ 160
대자연의 품에서 1 _ 162
대자연의 품에서 2 _ 164
홀로 핀 들꽃 향기 _ 165

해설

리리시즘과 에코토피아 정신을 품에 안은 강석진 시(詩)의 세계 / 이수화 _ 166

1 내가 두고 온 산하(山河)

길

산길을 걷는다
꾸불꾸불한 오솔길도 걸었다
산비탈을 지나 저 산등성이를 넘으면
어느 이름 모를 산마을로 가는 길

화구를 메고
어머니의 마음처럼 포근한
자연의 품 안에서
산길을 걷는다
가 본 적 없는 어느 산마을 찾아서

미지의 세계로 찾아가는 길
산 너머 어느 평화로운 마을
소박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이름 모를 아름다운 산동네 찾아
외딴 산길을 걷는다
미지의 세계가 있어
나는 꿈을 안고 살아간다

내 그림 속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
저 산 언덕 너머로 가는 길
어느 미지의 세계로 끝없이
피안을 찾아가는 길

아침의 산길에서 함께한 친구들

물안개 낀 우면산
오랜만에 돌아온 산길에는
낯익은 나무 친구들이
언제나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정든 모습으로
반가운 몸짓으로 이야기하며

산비탈 언덕에 올라
풀 위에 누워
두 눈을 감는다

나뭇잎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
숲속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풀벌레들의 합창

산비탈 가까이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매미들의 합창
제각기 다른 목소리로
그들만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

숲속 산벌레들의
삶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 세상에 왔다가
짧은 삶을 마치고 떠나야 할
그들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산비탈 숲 속에
눈을 감고 누워 있다
내 얼굴을 쓰다듬어 주는
다정한 아침 산바람 향기
나뭇잎 스쳐가는 산들바람 소리

자연의 품속에서
내 친구 나무들과
산벌레들과
산새들과 하나가 되어
자연의 품 안에 누워 있다

산 나무 위에서
매미 한 마리가
목청을 다해 외치고 있다
오랜 세월 수많은 해를
땅속에서 애벌레로 기다려 왔던 그가

어느 날
이 산속 푸른 숲에서 매미로 태어나
넓은 세상에 날개를 펼치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에
그토록 감격해서일까

이 계절이 지나면
우면산 친구들과 함께했던
짧은 삶을 마치고
떠나야 하는
슬픈 이별의 아쉬움을 외치는 것일까

아침의 숲 속에서
우면산 친구들과
생명의 신비를 함께하고 있다
물안개 자욱한
새벽의 우면산 위에서

물안개 낀 새벽의 산길에서

물안개 낀
새벽의 산길을 오른다

멀리 내려다보이는
우리네 사람들이 사는 시가지 풍경
복잡한 이 세상 삶의 모든 것을
아침의 물안개가 정화시키고 있다

관악산 중턱에서 바라본
물안개 낀 시가지 풍경
한 폭의 동양화처럼
맑고 아름답다

*2007.

구름이 되어 돌아온 나의 친구

인왕산 위 바위에 홀로 앉아
멀리 바라보는 저 높은 하늘
석양의 하늘 위에 떠 있는 하얀 구름을 바라본다

노을빛 받으며
나를 내려다보는
다시 만나는 옛 친구
반가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반갑다 내 친구 구름아

언젠가 너와 나는
우리 동네 목욕탕에서 함께 있었지
너는 내 몸을 포근히 감싸 주었지
그때 우리는 반가운 이야기를 나누었지

그날 우리가 헤어지면
너는 강물이 되어
넓은 대지를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했지
언젠가 너는 구름이 되어 하늘로 오르면
그때 우리는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었지

Jean Kang

오늘 인왕산 바위에 올라
멀리 석양의 하늘 품속에 있는
너를 다시 만나게 되었구나
반갑다 친구야

그때 약속했던
작별의 이야기처럼
언젠가 너는 비가 되어
푸른 숲 대지 위에 내려오게 되면
산속 계곡의 개여울을 따라와
강물이 되어 돌아오게 되고
그때 우리는 강변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지

먼 훗날 네가 비가 되어
덕수궁 돌담 길 위로 내린다면
나는 노오란 우산을 들고 너를 반갑게 맞이할 거야
그때 노오란 우산 속에서
너의 빗소리를 들으며
구름이 되어 저 넓은 하늘을 여행했던
너의 아득한 긴 여행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

그때를 위해
석양의 흰 구름 되어 다시 만난 너와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눈다

산길에서 만난 진달래꽃

새벽의 우면산 산길
추운 겨울 이겨낸
옷 벗은 나무들 사이로
연분홍 진달래꽃이 곱게 피어 있네

낙엽이 쌓인
눈 녹은 산길에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나무들
옷 벗은 나뭇가지에 핀
연분홍 진달래꽃
수줍은 맑은 표정으로
산길에 피어 있네

새벽의 우면산 산길
봄을 기다리는 이 산길에서
진달래꽃 향기를
가슴으로 느낀다

파아란 하늘 속 마음의 여행

아침의 우면산 기슭에 누워
아침 햇볕이 비치는
눈부신 초록 나뭇잎 사이로
파아란 하늘을 바라다본다

끝없이 넓은 저 하늘 너머
미지의 세계
별들의 세계
산 위에 누워 바라보는 푸른 하늘 너머
먼 우주 속으로
마음의 여행을 떠나고 있다

이 지구별 위에
내가 누워 있는 이 산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산 위의 친구 나무들
눈부시게 화려한 아침 햇살에
빛나는 나뭇잎들
그 너머로 보이는 파아란 하늘

산속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산새 소리 벌레들 울음소리

나는 자연의 품속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산비탈 풀 위 누워 있다
푸른 하늘 너머 먼 우주 속으로
마음의 여행을 떠난다

다시 만난 흰 구름 친구

산 위에 누워 바라보는
파아란 봄 하늘
우면산 나무 숲 사이로
흰 구름을 바라본다

아침 햇볕에 눈부시게 밝은
흰 구름아
너를 다시 만나 반갑구나

그 언젠가 너는
물안개가 되어
우면산 산길에서
나와 만난 적이 있었지

지난해 가을에는
늦가을 가랑비가 되어
덕수궁 돌담길에서 우리는 만났었지

우수의 가을 그때 나는
덕수궁 돌담길에 쌓인
가을 낙엽을 밟으면서
갈잎색 우산을 쓰고
혼자 걷고 있었지

이제 너는 다시
흰 구름이 되어
파아란 봄 하늘로 돌아왔구나

초록빛 여름이 오면
남쪽 섬 산비탈에 앉아
바닷가 풍경을 화폭에 그릴 때

너는 여름비가 되어
나와 다시 만나게 되겠지
네가 개구쟁이처럼 장대비가 되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내 옷을 적셔도
나는 너를 반갑게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
너와의 작별 인사를 나눈다

우면산 산 위에 누워
파아란 저 하늘 위에서
반가운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다시 만난 친구 흰 구름과
작별의 이야기를 나눈다

새 생명을 위해 집을 짓는 산까치

우면산 산자락은 언제나 고향의 품
느티나무 가지 위에
한 쌍의 까치가 집을 짓고 있다

어디에선가
작은 나뭇가지를 물고 날아와
하나씩 쌓아 가고 있다

먼동이 터올 무렵
한 쌍의 산까치가
새 생명을 탄생시킬
집을 짓고 있다
봄을 기다리며

입춘이 지나고
산기슭에 쌓인 겨울눈도 사라졌다
봄이 오는 녹색의 내음새가
우면산 바람 속에 묻혀 오고 있다

파아란 하늘 아래
높은 느티나무 가지 위에
집을 짓고 있는 두 마리의 까치
새 생명을 위해
정성을 담은 집을 짓고 있다

연두색 새싹이 터 오르는
새봄이 오면
저 나무 위 까치집에는
새 생명이 탄생하겠지
그때 나는
산까치 가족들과도 만나게 되겠지

그때를 위해
산까치 두 마리가 집을 짓고 있다
먼동이 밝아 오는 이른 아침부터

*2007. 2. 10.

산골짝 계곡을 흐르는 물과 나눈 이야기

산비탈 작은 계곡을 흐르는 물속에
발을 담그고
돌 사이를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있다

계곡의 돌 틈에서 흘러나온 물들
산속 나무뿌리 사이로 흘러나온 물들
작은 계곡에서 함께 만나
다정한 물소리를 내며 흘러간다

계곡에서 만나는
수많은 돌들을 씻어주고 어루만지며
산속에 조용한 물소리를 남기면서 흘러간다

산골짝 계곡을 흐르는 작은 개울
내 발등을 다정하게 씻어주며
조용한 물소리 음악을 내게 들려주고 있는 너는
이제 나와 헤어지면
이 개울을 따라 흘러가
어느 아름다운 시냇물과 만나게 되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하겠지

저 산 아래 멀리 바라다보이는
강물과도 만나
함께 먼 바다로 가겠지

내 발등을 씻어주며
나와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너는
언젠가 흰 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위에서
이 산길을 다시 찾아온 나를
반가운 표정으로 내려다보겠지

어느 날엔가
너는 비가 되어
어느 이름 모를 소녀의 우산을 적셔주겠지

이 산 계곡의 나무들과 함께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너의 조용한 물소리를 듣고 있다
다정한 작별의 인사를 나누면서

친구 바람과 함께

— 자연의 품 안에서

강변 풀밭에 누워 있다
눈을 뜨고 바라보는
짙푸른 하늘 눈부신 하늘
끝없이 깊은 저 하늘이
우주의 품 안으로 나를 안아주고 있다

내 얼굴을 스치는 바람 친구
너는 내 손등과 내 발목과 어깨
내 몸을 너의 따뜻한 마음으로
쓰다듬어 주고 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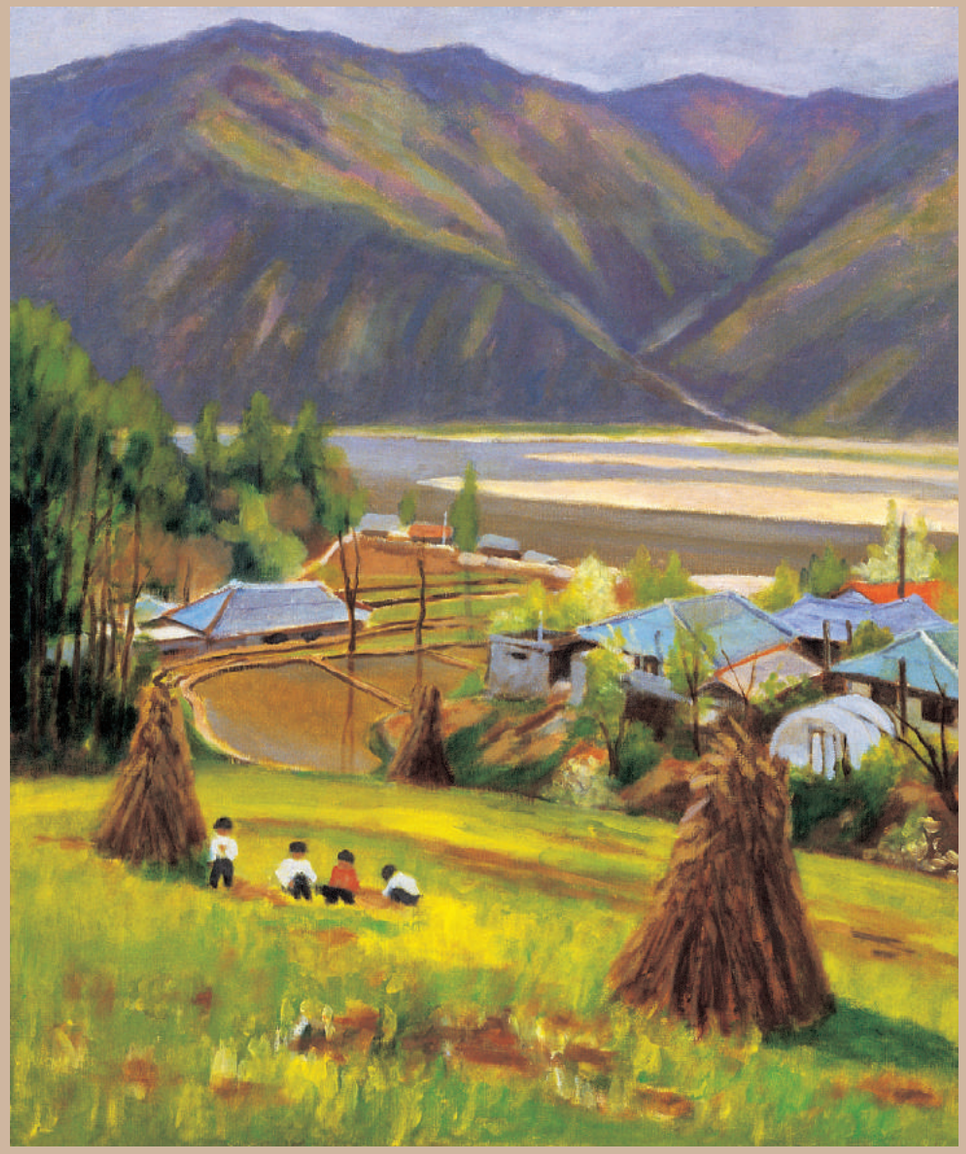
반갑다 친구 바람아
이 강가에서 너는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가 강가에 와 잔디밭 풀 위에 누워 있기를
너는 기다리고 있었구나

머리 위 나뭇잎들이
나를 반기며 몸을 흔들며 나부끼고 있다
바람아, 너는 너의 친구 푸른 나뭇잎들을
쓰다듬어 주고 있구나

잔디 위에 누워 싱싱한 풀내음을 느끼며
따뜻한 아침 햇살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내 눈에 문득 눈물이 고이는구나

강변 풀밭에 누워
자연의 품 우주의 품 안에서
눈을 감고 있다

내 얼굴 내 손등
나를 쓰다듬어 주는 친구, 바람과 함께



들꽃, 바람

푸른 들판에 핀
노오란색 들꽃
파아란 하늘 바라보고 있다

무슨 생각에 잠겨 있을까
짙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들꽃의 눈에는
이슬처럼 눈물방울 맺혀 있다

혼자서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외로운 들꽃의 볼을
가만히 스쳐가는 바람
들꽃을 품에 안아 주는 바람
나는 저 바람이 되고 싶다

나무들과의 이야기

먼 동쪽 산기슭의 하늘이 밝아올 때
새벽 물안개가 걷혀 가는 산길에서
나는 밤새 나를 기다리는 친구 나무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제각기 다른 몸짓을 하면서 나를 반겨 주었다

밤새 내린 눈이 하얗게 쌓인 겨울 새벽
그들은 머리며 등이며 온몸에
흰 눈을 쓴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따뜻한 마음의 눈으로 쓰다듬어 준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의 화폭에 소중하게 옮긴다

철 이른 봄이 오면
겨우내 벌거벗었던 그들의 몸에는
어느새 파아란 물기가 오르고
샛노오란 연두색 나뭇잎 사이로
생명의 싹이 터 오른다

새벽의 산길에서 나는
그들이 숨 쉬며 외치는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된다
나는 그들이 생명을 찬미하는 모습을
나의 캔버스에 소중하게 옮긴다

어느 이른 봄날 아침
아직 봄눈이 산기슭에 남아 있던 산길에서
손과 발이 잘리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땅 위에 뒹굴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만났다

사람들의 날카로운 톱 자욱이 할퀴고 지나간 산길에서

그들은 고통을 삼키는 슬픈 눈으로 나에게 이야기했다
“이제 다시는 이 정든 산길에서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손과 발이 잘린 우리는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슬픈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작별의 슬픈 인사를 보내면서

나는 산비탈 땅 위에 쓰러져 있는
상처 난 그들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하나씩 내 작은 화실로 소중히 옮겼다
나는 그들의 상처 난
흙투성이의 몸을 씻겨 주었다

그들이 언제나 서 있었던 그 산길 대신
이제는 나의 화실에서 그들은 나를 기다린다
나의 풍경화 그림 속에 보이는
산과 숲과 산비탈 밭이랑 무논을 바라보면서
친구인 나를 화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오랜 세월
계절 따라 옷을 갈아입으며 언제나 서 있었던 그 산길에
그들은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리라
나는 연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

인왕산 높은 바위에 앉아서
저 산 아래
시가지를 내려다본다

도심 속 수많은 고층 빌딩의 숲
시가지를 품에 안은 인왕산 산 아래 마을에는
다정한 옛집들이 모여 있다
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네 사람들

먼 산울림처럼
바람 소리처럼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겠지
제각기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지

인왕산 바위에 앉아
내려다보이는 서울의 시가지
저 많은 빌딩과 집들
저 멀리 바람 소리처럼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그 속에서 우리네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겠지

인생을 이야기하며
소박한 꿈을 이야기하며
삶의 애환을
가슴에 삭이면서
제각기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지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그 속에서 들려오는
산사의 목탁 소리가
맑게 울려 퍼진다

조용한 목탁 소리가
산속을 울리면서
도시의 탁한 소음을 정화하고 있다

산 중턱 어느 산사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가
도시의 하늘 위로 울려가고 있다
사람들의 삶을 정화시키며

하늘에서 바라보는 대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저 넓은 대지

산비탈 밭과
무논 사이를 흐르는 시냇물
옹기종기 모여 있는 시골 마을
마을로 가는 시골 들판 길

넓은 들판과
마을들을 지나
푸른 숲으로 덮인 산 위를 날고 있다
아직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내려다보고 있다

내 평생 언젠가
찾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저 산과 마을들 넓은 들판
비행기 창밖으로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미지의 세계
넓은 대지를 바라보고 있다

*2007. 6. 23.

비 오는 산길에서

비 오는 산길을
우산 없이 걷고 있다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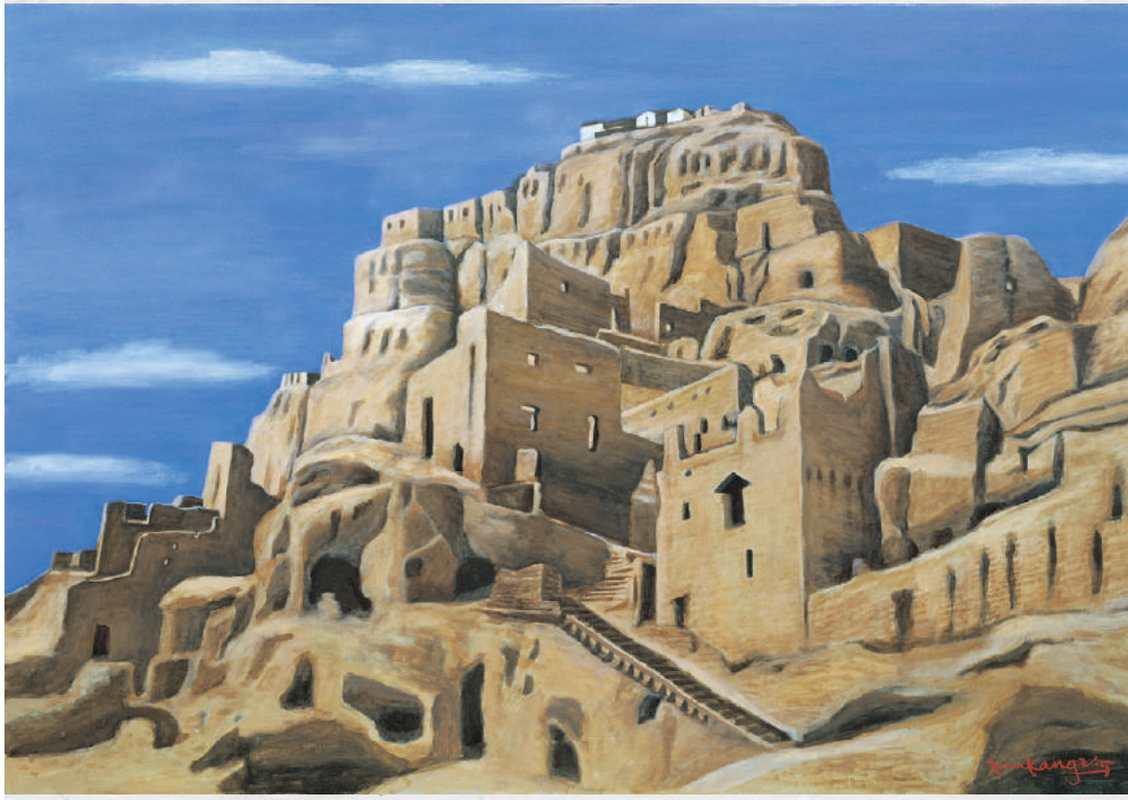
먼 계곡 산사에서
아침의 목탁 소리가
산울림처럼 들려온다

나뭇잎을 적신 빗방울들이
내 어깨에 내 머리 위에
오래전에 만난 옛 친구처럼
떨어져 내린다

정겨운 비를 맞으며
아침 산길을 오른다
머리서 들려오는
산사의 목탁 소리를 들으며

*2007. 8. 14. 이른 아침에.

2
눈을 감고 바라보는 세상



이른 봄 새벽의 산길에서

봄이 아름다운 까닭은
춥고 어두운 겨울을
지내 왔기 때문이다

새벽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까닭은
어두운 밤을 지내 왔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맞는 봄
눈부신 햇살, 파아란 생명의 새싹
생명이 넘치는 새벽 산길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밝아오는 동녘 하늘에
오렌지색 황금빛으로 물이 드는 아침

숲 사이로
물안개 속으로
솟아오르는 생명의 향기
아침 햇살에 비쳐오는
눈부신 파아란 생명들

평화로운 아침
안개 낀 새벽 산길에서 만나는
잠에서 깬 나무들
그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산까치들

*2007. 4. 12.

미지의 마을을 향해 걷는 산길

산비탈 언덕 너머로 가는
산길을 오른다
돌계단길
흙길을 밟으면서

꾸불꾸불한 산길
어디론가 나를 부르고 있다

아주 멀리
저편 산 아래에서
도시의 소음이 아련하게 들려온다

산새 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
숲 속 나무 사이로 바람 소리 들려온다

나는 산길을 오른다
셀 수 없는 돌계단과
비에 젖은 황톳길 산길을 밟으면서
산 위를 향해 걷는다

숨이 가쁘게 차오르지만
나를 부르는 저 산 정상을 향해 오른다
꾸불꾸불하고 가파른 산길을 넘어
이름 모르는 어느 마을을 찾아 걷는다

가파른 언덕길을 넘어가면
또 하나의 신비로운 언덕길이
나를 부른다

가슴에 차오르는 숨을 들이켜며
흐르는 땀방울을 닦으면서
높은 그곳을 향해
미지의 세계를 향해 오른다

산 너머 어느 마을로 가는
꾸불꾸불한 산길을 걷는다
저 산 너머에 있을
이름 모르는 산마을
소박한 사람들의 삶의 내음새가 풍기는
작은 산마을
그 미지의 마을을 찾아 산길을 오른다

*2007. 7. 28.

봄 향기 합창 소리

봄 내음새가
가득히 풍겨 오는
이 산길에는
생명의 향기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내음새가
바람결 따라
풍겨 온다

수많은 생명들의
합창 소리가 들려온다
산벌레들 소리
산새들 소리

저 멀리 내려다보이는
산 아래 마을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사람 사는 소리
봄의 합창처럼 들려온다

서래풀 개나리꽃 봄 향기

노오란 개나리꽃이
담장 위에 곱게 피었다
서래풀 산 아래
학교 담장
온통 노오란 개나리꽃으로
덮여 있다

겨울을 지낸 서래풀 산나무들
아직은 연두색 봄옷을 입지 않은
벗은 몸으로 서 있지만
이른 봄 서래풀 산 아래 학교 담장에는
눈부신 노오란 개나리꽃으로 덮여 있다

개나리꽃 봄 향기가
산 아래 서래풀 마을
골목길 사이로 풍겨 온다

진달래꽃이 피어 있는 봄의 산길에서

겨울을 보낸 나무들이
아직 봄의 새옷을 갈아입기 전에
옷 벗은 나무들 사이에는
연분홍 고운 진달래꽃이 피어 있네

봄나무 가지에
새싹이 트기 전에
진달래꽃이 피어 있네
알몸의 나뭇가지에 핀
진달래꽃

나무 잎새가 싹트기 전
연분홍 색깔의
화사한 진달래꽃이 피어 있네

갈색의 나무들이
알몸으로 서 있는
서래풀 산길에 핀 진달래꽃
아침 산길에서 만난 내게
눈웃음을 보내며
수줍은 표정으로
봄 향기를 보내 주고 있다

*2007. 3. 26.

봄 향기

연녹색 봄빛으로 단장한
눈부신 아침 산길에서
향긋한 봄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다
반가운 봄 향기의 애틋한 정을 남기면서

산길에 서 있는 나무들
연둣빛 봄옷으로 갈아입은
나무들 사이로
눈부시게 화려한
아침 햇살이 비쳐온다

숲 속 어디에선가
산새들 지저귀는 소리
아침 인사 나누는 정겨운 소리가 들려온다

*2007.

우면산의 향기

낙엽이 쌓인
산길을 걷는다
낯익은 친구 나무들이 기다리고 있다
언제나처럼
반가운 표정으로

나무들 사이로
산비탈길을 올라가는
이 산길은
내 그림 속에 보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낙엽의 산길을 걸으며
한 폭의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
길 저편 산 너머로 가는
구부러진 언덕길
그림처럼 아름다운 산길을 걸어오는
소박한 사람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 산길을 오르는
엄마의 모습
그림 속 천사의 모습니다

우면산
아침 산마루에는
자연의 향기, 사람의 향기가
함께 풍겨 온다

*2007.

오랜만에 돌아온 우면산에서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마음의 고향 우면산 산길에는
언제나처럼
내 친구 나무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동안 여름의 짙은 녹색 옷으로 갈아입고
어젯밤 내린 비에
촉촉이 젖은 몸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비에 젖은 촉촉한 우면산 산길을
맨발로 걸어 올라온 나는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함을 느낀다

먼 이국의 땅을 여행하면서
넓은 세계
이국의 신비스러운 자연을 만나면서
대자연의 넓은 마음을 생각했다

이국의 먼 여행에서 돌아와
우면산 아침 산길을 오른다

촉촉하게 비에 젖은 흙을 밟으면서
정든 친구 나무들을 다시 만난다
고향의 품으로 돌아온 우면산 산길에서

*2007. 7. 26.

우면산 산길에서 만난 나의 친구들

늦겨울 내린 눈이
우면산 산길에 쌓여 있다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산길을 오른다

이 산길에는
낯익은 친구 나무들이
아침 산길을 오르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

산길에 쌓인 눈들이
반갑게 나를 맞이하고 있다

언젠가 나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던 그 시냇물이
하늘의 흰 구름이 되어
나를 반갑게 내려다보더니

이제 너는 흰 눈이 되어
우면산 산길에 내려와
오늘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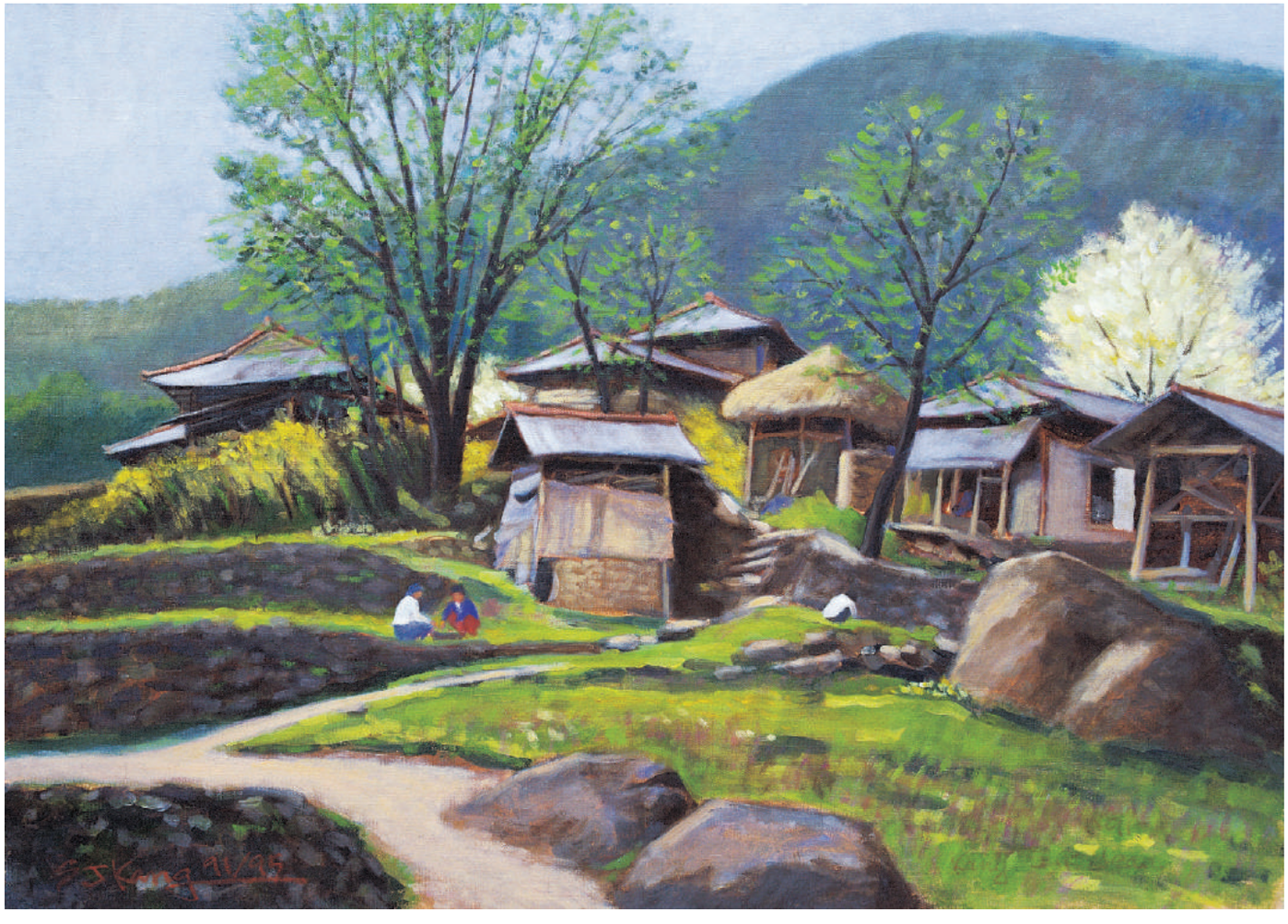
봄이 오면
너는 다시 물이 되어
산골짝 작은 계곡 맑은 개울을 흘러
강물이 되고
흰 구름이 되어
푸른 하늘을 다시 수놓게 되겠지

언젠가 이슬비가 되어
내게 돌아오면
노오란 우산을 쓰고
너를 기다리겠다

밤새 흰 눈이 내린
우면산 산길을 오른다
나의 친구 나무들
산길의 하얀 눈
그들과 하나가 되어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며
산길을 걷는다

어머니의 마음처럼 따뜻한
자연의 품 안에 함께 안기어
하얀 눈 쌓인 산길을 걷는다

*2007. 1. 27. 우면산 산길에서.



봄을 기다리며 집을 짓는 산까치

우면산 산마루에 누워
밝아 오는 아침 하늘을 바라본다

옷 벗은 겨울나무 사이로
파아란 아침 하늘이 바라보인다
흰 구름이 나무 사이를 지나간다

겨울나무 가지 위로
두 마리의 산까치가
작은 나뭇가지를 하나씩 물고 날아온다

내 머리 위 겨울나무 위에는
그들 산까치 둘이서
작은 새집을 짓고 있다
두 개의 까치집 옆에 새집을 짓고 있다

산까치의 다정한 울음소리가
아침 산속으로 울려온다

봄을 기다리며 집을 짓는 산까치
봄이 오기 전에 집을 짓기 위해
열심히 나뭇가지를 물어 온다

내가 누워서 바라보는
저 나뭇가지에는
작은 산까치의 집들이 있다
산까치의 집들 너머로 바라보이는
푸른 하늘

저 푸른 하늘 위로
두 마리의 산까치가
날아오고 있다

봄을 기다리며
이른 아침부터
산까치들은 집을 짓고 있다

태어날 새 생명을 위해
집을 짓고 있다

물안개 속 진달래

물안개 자욱한
새벽 산길
연분홍 진달래꽃이
혼자서 피어 있구나

낙엽이 쌓인
산비탈길 바위 곁에
외롭게 핀 진달래꽃

물안개 낀
이 산길에서
너는 나를 기다리며
바위 곁에
수줍게 피어 있구나

*2007. 4.

관음사 가는 계곡길에서

새벽의 산사 가는 길에서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와 만나게 된 것은
대자연이 내게 준 축복이다

작은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
숲속의 풀벌레 소리와 함께 들려온다

작은 돌 바위 틈새로 흘러내리는 물소리
생명이 숨 쉬는 자연의 향기다
세상의 번민으로 흐트러진
내 가슴을 씻어주고 있다.

이 아침 산길에서 만난 계곡의 물 흐르는 소리
자연이 내게 준 신선한 울림이다
가슴과 영혼의 자욱들을
평화롭게 씻어주고 있다

*2007. 10. 2.

자연의 품에서 기원하며

오늘 새벽
대자연의 품 안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석불님 앞에
고요히 눈을 감고 서 있습니다

당신의 넓고
자비로운 품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번뇌와 갈등에서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모든 번민에서 떠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당신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내 주위의 모든 인연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십시오

오늘 아침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치는
당신의 자비로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손에서 빛나는
금빛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이 소망을
들어 주소서

*2007. 10. 5.

관음사 석불 앞에서 1

당신 앞에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이곳에 오게 했습니다
당신의 편안한 미소 자비로운 미소에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당신의 미소 앞에서 오늘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원을 합니다
두 손을 정성스레 모아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이 자리에 자비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지요
오늘 비로소 저는 당신의 온화한 미소를 제 가슴으로 느낍니다

모든 것 털어 버리고 무아의 경지가 되면 부처가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지요
당신의 그 말씀을 오늘 비로소 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비워버릴 때
나는 대자연의 하나가 되고 대자연의 품속에 안기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자연은 우주의 하나이고 나는 그 하나가 될 것이라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 대자연의 품에 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미소를 바라보며 자연의 편안한 품속에 의지합니다

우면산 산길에서 문득 당신이 계신 이곳 관음사에 오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알 수 없는 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이곳에 데려왔습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미소 앞에서 나는 대자연의 품에 안깁니다
아직 내 마음을 비우지 못했지만 당신의 넉넉한 품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소망을 드립니다

*관음사 부처님 상 앞에서.

관음사 석불 앞에서 2

자비로운 모습으로 제 앞에 서 계신 부처님
부처님의 넓은 품에 의지합니다

제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십시오
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십시오

물 흐르는 소리 산벌레들의 소리를 들으며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부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어 대자연이 나를 부르면
그때 저는 자연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부처님의 세계로 갈 것입니다

가장 평화로운 마음으로
대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소를 머금고 돌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의 세계
대자연의 품속에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자연의 품,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게 마음의 평화를 주십시오

*2007. 추석 다음날.

눈을 감고 바라보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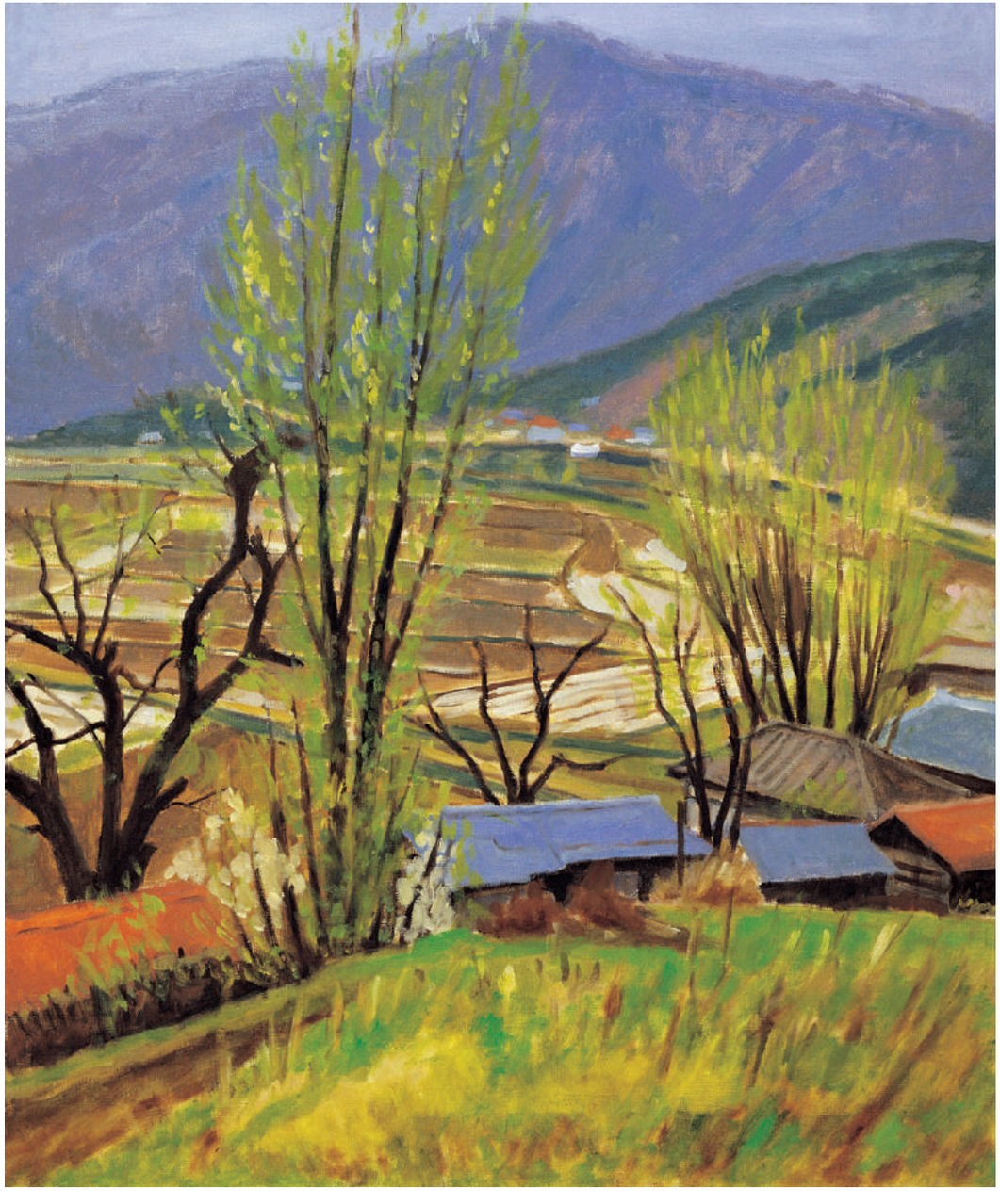
산마루 위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자연의 소리 듣고 있다

나뭇잎 스치는 바람 소리
산비탈 멀리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산새들 합창 소리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시작한 산 위에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풀벌레들의 우는 소리

먼 산 아래 마을에서
솔바람 소리처럼 들려오는
사람 사는 소리
삶의 향기

산 위에 눈을 감고 앉아 있는 나를
미소 짓는 모습으로 지켜보는
자연의 친구들
나와 함께 있는 생명들



먼 하늘 너머
우주의 먼 곳 어디에선가
이 아침을 밝혀주기 위해
내게 찾아온 맑은 빛

나는 눈을 감은 채
우주의 품 안에 있다
자연의 생명을 마음으로 느끼며
우주의 하나가 되고 있다

눈을 감고 바라보는 세상
눈을 감으면
더 넓은 세상이 보인다
무한한 우주의 품을 느낀다

*2007. 구정 그믐날.

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전생에 어느 별에서
함께했던 우리가
이 지구별로 돌아와
서로가 다른 인생의 길을 살아왔었지

어느 순간 우연한 인연으로
우리는 지구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지
전생에 함께했던 어느 별에서의 추억을
기억하지 못한 채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
우리는 아름다운 지구별로 돌아오게 되었지
21세기 같은 시대에
아름다운 산하 한반도에서 태어나
우정을 함께하는 동행이 되어
한 시대를 함께한 엄청난 인연

어머님의 품처럼
따뜻한 우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준 천생의 인연으로
한 시대를 함께 살게 되었지

먼 훗날 언젠가 지구별에서의 때가 끝나고
우리가 왔던 별로 돌아가게 될 때
두고 온 마음의 고향 지구별을 그리워하며
우리는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2007. 10. 3.

J.Kang '96

우주의 마음에 감사하면서

우주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끝없이 넓고 먼 하늘이 있어요
수많은 빛나는 별들이 있어요

밤이면 밝은 달빛이 있고요
은하수와 북두칠성 샛별이 있고
견우와 직녀가 다정하게 바라보며
하늘에서 빛나고 있어요

넓은 우주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지구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파아란 하늘이 있고
흰 구름이 하늘을 날아가고 있고
푸른 산과 넓은 들이 있어요

넓은 들판 논과 밭에는
언제나 자연에 감사하는
농부들의 마음이 있어요

산에는 푸른 숲이 있고
계곡에는 진주 같은 맑은 물이 흐르고
산새들과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겨울이 오면
눈 덮인 산들은 그림처럼 아름다워요
이처럼 아름다운 지구
우주의 마음을 따라
나는 이 지구별에 왔습니다
우주의 마음이
나를 이 아름다운 지구별로 보냈어요

이 아름다운 지구별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삶의 기쁨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지구별의 풍경을
내 그림 속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지구별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저를 이 지구별에 보내주신
위대한 우주의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8. 1. 10.

3 가을의 산 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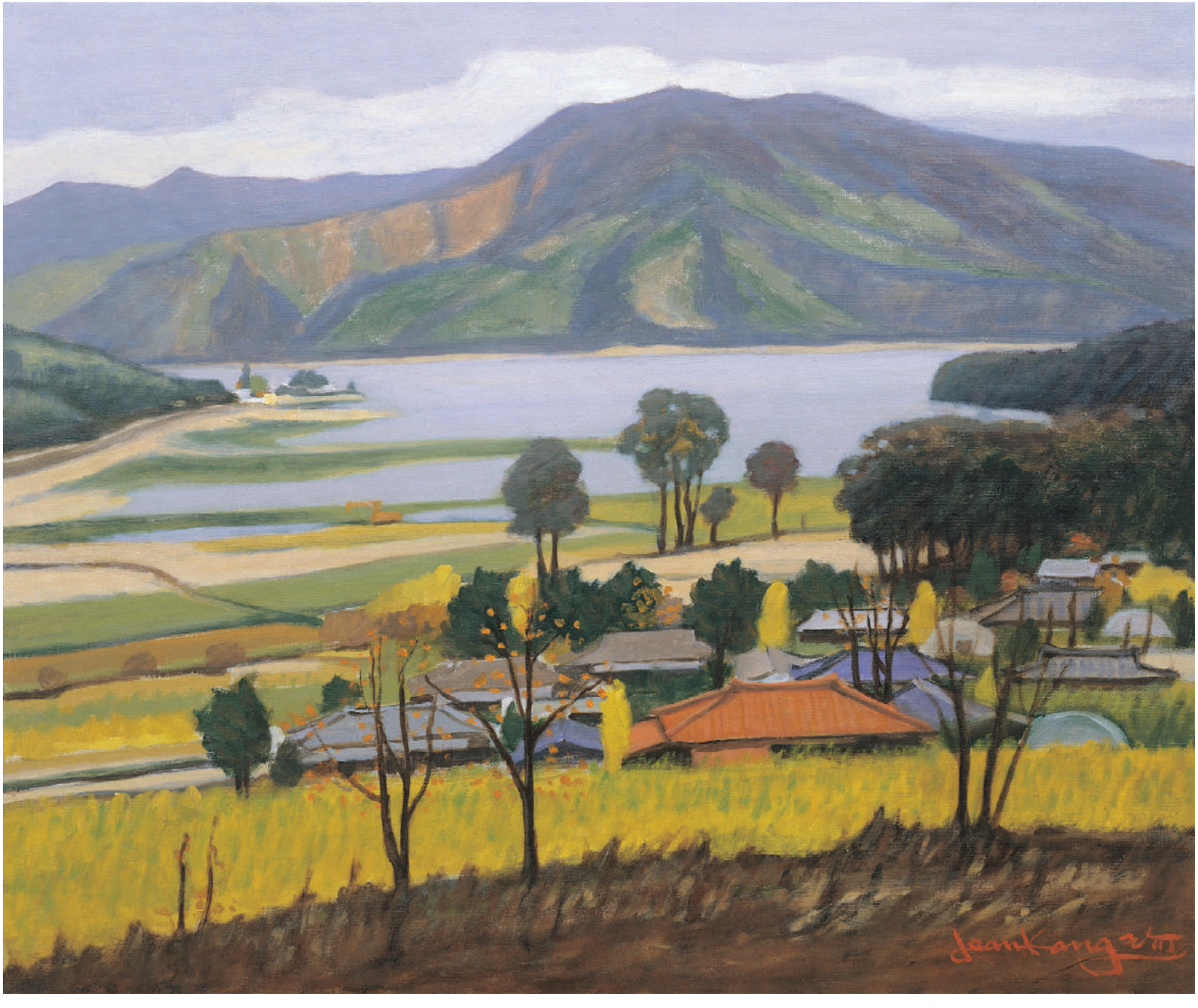
가을의 산 위에서

가을의 관악산 위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다

저 멀리 산 아래
사람 사는 도시에서
바람 소리처럼
도시의 소음이 들려온다
소박한 사람들의 삶의 내음새가
바람 소리처럼 들려온다

눈을 감고 앉아 있는
이 산마루
나를 둘러싼 나무들
산벌레들의 외치는 소리가
합창처럼 들려온다

이 세상에서
이 산 위에서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을 마시는
삶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일까



이제 가을이 깊어 가면
이 세상, 이 산을 떠나야 하는
저 산벌레들이
작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것일까

산벌레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 산 이 자연의 품 안에 하나가 되어
그들의 외로운 이별의 합창을 듣고 있다
산까치 소리가
저 먼 계곡에서 들려오고 있다

눈을 감고
자연의 품 안에 누워
가을 산벌레들 이별의 합창 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있다

*2007. 9. 22.

인간과 자연의 소리가 하나가 되어

우면산 기슭
약수터 나무 의자에 누워
눈을 감고 있다
가을의 풀벌레 우는 소리가
나무 숲 사이로 들려온다

이름 모를 풀벌레들의 소리
이제는 떠나야 할 날을 앞두고
소리 내어 울고 있다

약수터에서는
마을 할머니들이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풀벌레들 합창 소리와 함께 들려온다

풀벌레들의 소리
소박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침의 우면산은
인간과 자연의 소리가 하나 되어
자연의 음악이 되어 들려온다

*2008.

늦가을 산길에서

낙엽이 쌓인 우면산 산자락
조용한 아침 산길을
낙엽을 밟으며 걷는다

아침마다 이 산길에서
나를 기다리며
합창 소리를 들려주던
그들 산벌레들은
모두 어디로 떠났는가

이 산에 왔다가
한 계절 짧은 삶을 살고 떠나야 했던 그들
작별이 안타까워
한을 외치던
그들 산벌레들의 합창 소리

그들이 떠난 이 산길에는
조용한 외로움이 남아 있다
멀리서 외로운 산새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늦가을 산 위에 누워

늦가을 산 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나뭇잎들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표정으로

한여름 짙푸른 색깔이었던 나뭇잎들
어느새 가을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나무 친구들
"너 참 변하지도 않았구나"라고 반가워했다
가을의 나뭇잎처럼
우리 모두는 변해가고 있겠지

가을의 낙엽이
한 잎씩 떨어지고 있다
땅 위에 떨어져 내리고 있다

대지의 품 안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나뭇잎들
우리도 언젠가는
대지의 품으로 돌아가겠지

늦가을 산 위에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떠나는 이별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08. 10. 19.

고향 둥지 찾아온 산까치

우면산 산길 느티나무 위
산까치 둥지에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다

온 여름
푸르던 느티나무 잎들이
황갈색 가을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온 여름 비어 있던 까치집에
나이 어린
작은 까치 한 마리가 찾아와 있다
고향 집에 돌아온 산까치

지난 초봄
한 쌍의 산까치가 찾아와
어디선가 물어온 나뭇가지를 쌓으며
느티나무 위에
예쁜 둥지 새집을 만들었다

봄이 되어 따뜻한 햇볕 속에서
산까치 한 쌍이 지켜온 둥지에는
새끼 까치들이 태어났다

둥지에서 퍼득이던 작은 새끼 산까치들
어느새 하늘을 날게 되고
그들은 느티나무 둥지를 떠났다

온 여름내
산까치들은 넓은 세상을 날아다녔고
푸른 잎새 사이로 보이던 산까치 집은
언제나 비어 있었다

어느덧
가을바람이
우면산 자락에 불어오면서
여름내 푸르던 나뭇잎들이
어느새 가을빛으로 물들었다

오늘 아침
태어난 옛집 둥지를 찾아온 까치 한 마리
가을이 물들어 오면서
그는 고향 집 둥지를 찾아온 것인가

태어난 둥지를 찾아온 산까치를 보면서
문득 내 고향 상주 숫골
어릴 적 자라온 시골 마을이 가슴에 다가온다

*2007. 9. 17. 우면산 산마루에서.

가을 풀벌레들의 합창

가을의 산길에서
풀벌레들이 외치는
합창 소리를 듣고 있다

수많은 풀벌레들이
제각기 목소리를 내며 외치는 소리
숲 속의 합창처럼 들려온다

저토록 소리 내어 외치는
풀벌레들의 합창
이제 가을이 익어가면서
저들도 떠나야 할 때가 되었구나
떠나야 할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애절한 이별의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여름날
이 산에서 태어나
산새들과 나무들과 함께 살아온 풀벌레들
가을바람과 함께, 낙엽과 함께
이곳을 떠나야 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 산에서
여름내 함께했던 친구들
산과 나무들을 뒤로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풀벌레들
저들이 외치는 작별의 합창 소리에서
사무치는 외로움이
내 가슴에 스며든다
풀벌레들의 마음이 느껴온다

*2007. 9. 17. 우면산 산길에서.

우면산 소망탑에서

우면산 소망탑 앞에서
먼 산 아래 시가지 풍경을 내려다본다

밝아 오는 아침에
잠이 깬 마을의 집들
그 속에 사는 소박한 우리네 사람들

소망탑에 정성껏 소원을 빌며
하나씩 둘씩
돌을 쌓았다

소박하게 사는 저들 모두에게
희망의 꿈을 주소서

*2007. 2. 21.

산길에서 만나는 낙엽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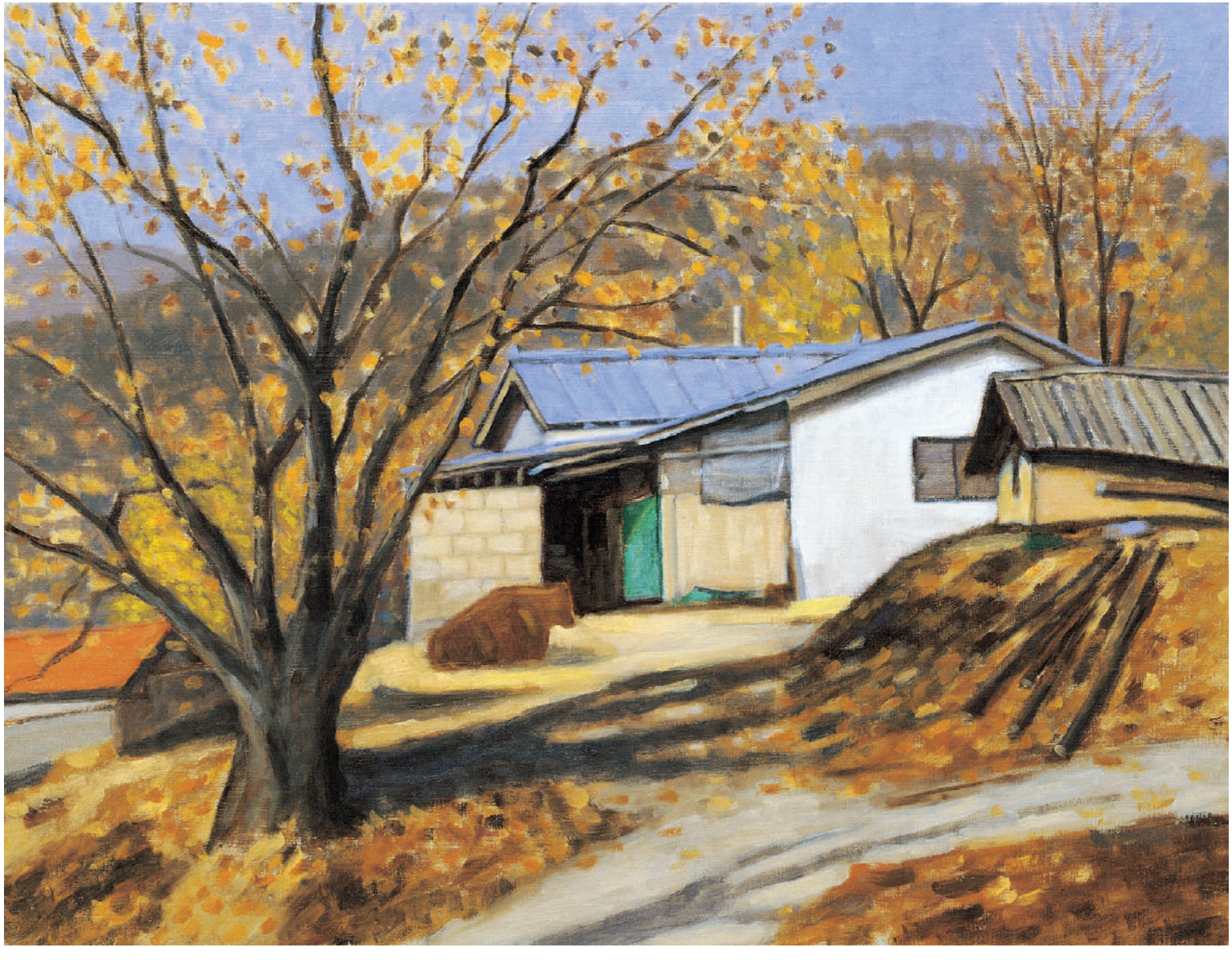
낙엽을 밟으며 산길을 오른다
아침 햇살이 나무숲 사이로 내게 비쳐오는
초겨울 새벽 산길

낙엽을 밟는 소리
조용한 새벽 산길에
시처럼 음악처럼 향기롭게 들려온다

숨을 고르며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마다
낙엽들은 저마다 다른 반가운 목소리로
내게 이야기를 해온다
내가 다정한 마음으로 자기들을 밟으며
그들의 연가를 들으면서
산길을 오르기를 밤새 기다렸다고

산길에서 만난 낙엽들이 내게 속삭이는 소리
나는 가슴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한여름 동안 우면산 길을
짙푸른 젊은 색깔로 물들여 주었던 나뭇잎들
이제 열정의 계절이 지나고
낙엽이 되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때를 기다리는 나뭇잎들
그들이 본 이 세상의 아름다운 추억의 이야기들을
내게 들려주고 있다



나는 산길을 벗어나
산 계곡으로 산등성이로
나를 기다려온 낙엽들을 밟으며 걸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조용한 산자락에 합창처럼 들려온다

나는 산비탈 낙엽 위에 누웠다
낙엽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누워 있다
조용한 합창 소리처럼
낙엽들이 내게 밀어를 속삭인다
짧았던 자기들의 삶의 이야기
아름다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한 편의 시로 남겨 달라는
그들의 이야기가 내 가슴에 들려온다.

이제 산비탈 낙엽 위에 앉아
낙엽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순박하고 꾸밈없는 낙엽들의 시를 쓰고 있다

가을의 산벌레들 합창

새벽의 산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 있다

가을 잎이 물들어 가는
나무들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가을 나무들의 물든 잎새 사이로
짙푸른 하늘이 바라다보인다
눈물이 흐를 것만 같은
짙푸른 가을 하늘

눈을 감으니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수많은 벌레들의 합창 소리가 들려온다
가을바람이 내 얼굴을 스쳐간다

조용한 새벽의 산 위에서
어디선가 바람처럼 들려오는
가을 벌레들의 합창
눈을 감으니
그들의 합창 소리가
내 가슴을 울리며 다가온다

합창처럼 들려오든 그들의 애타는 소리
어쩌면 그들 가슴속에 쌓아온 이야기를
대지를 향해 외치는 소리처럼 들려온다
가을 벌레들이 목청껏 다해 외치는 소리
가슴속 무엇을 외치는 것일까

가을이 익어가면서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오고
짧은 한 계절을 이 세상에 살아온 산벌레들
이 산길에 남기고 떠나야 할 그들의 이야기
이처럼 소리 높여 바람처럼 외치는 것일까

낙엽이 땅 위로 떨어져 내린다
이 계절을 나무들과 함께했던
그들도 이제는 떠나야 하겠지

가을 새벽 산 위에서
파아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작별의 합창을 듣고 있다
가슴으로 외치는 그들의 합창을 듣고 있다

낙엽이 내 얼굴 위에
하나씩 떨어져 내린다
나는 눈을 감고 누워 있다
하늘과 산 나무들, 자연의 품 안에 누워 있다
가을 벌레들의 합창을 들으며

*늦가을 산길에서.

가을의 은행나무 길

노오란 가을 물감으로 옷을 입은
은행나무 숲길을 걷는다

온 세상이 노오란 은행나무 길
땅 위에 쌓여 있는 은행잎을 맨발로 밟으면서
자연의 마음과 함께하며 가을 길을 걷는다

은행나무 길을 혼자서 걸으며
나는 은행나무 숲의 가을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

내가 온 이 아름다운 지구별에는
가을이 노오랗게 물든 은행나무 숲길이 있다
그림 속의 은행나무 숲길을 걷는다
지구별과 내가 하나가 되어

덕수궁 돌담길에서

노오란 색
가을의 은행잎들이 쌓인
덕수궁 돌담길

노오란 은행잎을 밟으며 걷는다
은행잎을 밟으며
돌담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은
가을의
노오란 색으로
물들어 있겠지

가을 산마루에서

가을 아침 산마루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다

조용한 이 아침에
자연의 합창처럼 들려오는
산벌레들의 소리
가슴속에 쌓여온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외치는 소리처럼
조용한 이 산속에서 들려온다

너희들 모두가
이 산의 숲 속에서 만나
나무들과 함께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왔겠지
이 한철의 삶을 살아왔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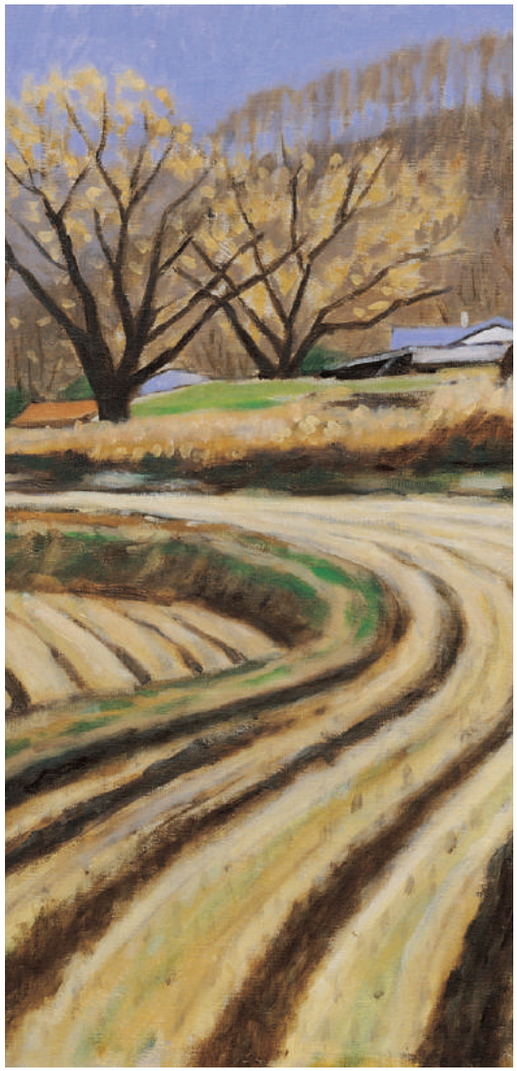
오랜 세월을
땅속에서 벌레로 살아온
너희들에게
이 땅 위에서
이 산 숲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마음껏 날으며 살아온
한계절 짧은 삶의 발자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는 알고 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이 산을 떠나야 할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이 산에서 살아온 짧은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겠지

조용한 이 아침
관악산 기슭에 앉아
산벌레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는다

너희들이 외치는 소리가
내 가슴이 메도록
촉촉이 젖어 온다



나 또한 언젠가는
이 지구별을 떠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 나는
너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희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로 쓰고 있다

먼 훗날
내가 돌아가게 될 어느 별
그 별의 친구들에게
지구별에
너희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
시를 쓰고 있다

4
어머니의 품 바위에서

어머니의 품 바위에서

인왕산에 오르면서
언제나 바라보는 저 바위
'어머니의 품' 바위

아기를 품에 안고
먼 산 아래 서울
시가지를 바라보는
따뜻한 어머니 모습의 바위

오늘 나는
어머니의 품 바위가 바라보이는
산등성이 바위에 눈을 감고 앉아
어머니 바위에게 내 간절한 소망을 빌었다

저 산 아래
인왕산 계곡에서는
무당굿 징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산신들에게 간절히 소망을 기원하는
애절한 저 굿소리가
산 계곡을 따라
바람 소리를 타고 울려오고 있다

소망을 빌고 눈을 떠
저 높은 곳의 어머니의 품 바위를 바라본다
저 높은 절벽 바위 위에
따뜻한 어머니 가슴처럼 아기를 품에 안은 저 바위
어머니의 품 바위는
내게 오라는 손짓을 하고 있다

나는 절벽과 낭떠러지의 위험을 안고
가파른 바위 산길을 올라
어머니의 품 바위에 안겼다
언젠가는 오르게 되리라고 기다려온
인왕산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어머니의 품처럼 행복한
평안함을 느낀다

언젠가 때가 되어
이 세상과의 작별을 해야 할 때
푸근한 어머니의 품
인왕산 어머니의 품 바위에
영원히 안기고 싶다

*2007. 10. 인왕산 어머니의 품 바위에서.

관악산 품 안에서

관악산 바위 봉우리 위에서
먼 시가지를 내려다본다

저 너머로 멀리 보이는 북한산
가까이 다가오는 우면산
바람 소리처럼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사람 사는 소리가
바람처럼 들려온다

하늘에는
눈부신 태양의 빛
끝없는 푸른 하늘, 그 너머로 무한한 우주

눈을 감으니
산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자연의 싱그러운 향기와
푸른 숲
밝은 빛이 내 얼굴을 쓰다듬어 주고 있다

*2008. 10.

관악산 바위에 누워서

산 위에 누워 눈을 감으니
풀벌레들의 합창 소리가 들려온다

한 계절을 함께 살다가
이제 떠나야 할 날들을 기다리는
풀벌레들이 이별의 합창을 하고 있다

푸른 숲에서
한여름을 함께 보낸 풀벌레들

이제는 떠나야 할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아침의 조용한 산길에서
이별의 합창을 하고 있다

나 또한 세월이 지나고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오면
아름다운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관악산 산마루
자연의 품에 누워
풀벌레들 이별의 합창을 듣고 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소리를 들으며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본다

*2008.

가을 산 풀벌레들 이별의 합창

가을의 새벽 산길에서
나무를 스쳐가는 바람 소리
풀벌레들의 합창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어디선가 멀리서
가슴속 쌓인 이야기를 외치는
매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른 아침에
저토록 사무치게
무엇을 토해 내려는 것일까

수많은 긴 세월을
땅 속에서
굼벵이로 살아온 그들
땅 위의 하늘을
날 수 있기만을 기다려온 그들
땅속에서 지나온
긴 세월을 외치는 것일까

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으며 살았던
지난여름

이 산 위에서 만난 친구들과
하늘을 날며 함께 살아온
짧은 삶

이제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는 아쉬움을
저토록 외치는 것일까

아침 산길에서
조용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생명의 소리가 들려온다
풀벌레들의 합창이 들려온다

이 산 위에서 만난 친구들과
작별의 안타까움을 외치는 것일까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는 산길에서
산벌레들의 합창 소리가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산울림처럼 가슴에 다가온다

그들이 떠나버린 산길에서

늦가을 산길을 걷는다
낙엽을 밟으며
산길을 오른다

조용한 산길
소리 내어 합창하던 그들
산벌레들은 모두 어디로 떠났는가

정든 이 산에서 만나
한여름을 함께 보낸 우면산 친구들과
이별의 아쉬움을 합창하던
그들 산벌레들이 떠난
조용한 이 산길에는
멀리서 까치 우는 소리만 들려온다

*2008. 11. 10.

꿈속에 찾아오신 음악의 천사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음악에 나 자신을 맡겨 버린 채
음악 속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한 음악들을 고르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나를 가장 평온하게 해 주는 곡들만을 골라
CD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 플레이어(Player)를 열면
내가 좋아하는 이 음악들이
언제나 제일 먼저 나오도록
해 두었노라고

내가 좋아하는
명상 음악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국과도 같은 행복한 시간 속에서
얼마인지도 모르는 시간을 보내고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20분이었습니다
아 이것이 꿈이었구나

이처럼 꿈속에서 나를 찾아 주신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게 음악을 들려주면서도
그분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깬 나는
감사하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하면서
꿈속에서 내게 찾아오셨던
천사를 기억하려고 애를 써 보았지만
끝내 그분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소리 없는 마음의 소리로 내게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이 CD 하나에 모았으니
음악 프로그램을 열면 들을 수가 있어요"
음악의 천사님은 이 말을 남겨두고 떠났으며
나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감사하고 향기로운 새벽 아침을 맞았습니다
꿈속에서 나를 찾아주신 음악의 천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저의 꿈속에 찾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마음이 평화로웠던 향기로운 그곳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꿈속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해 보려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어젯밤 꿈속의 음악 천사님은 형상과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채

"모든 일들을 아름답고 단순하게 평화롭게 해 두었으니
그대는 언제나 눈을 뜨면 평화로운 이곳에 와 있을 것"이라는
소리 없는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향기롭고 평화로운 아침, 꿈에서 깨어난 나는
꿈속의 일들을 기억하려고 애를 써 보았지만
나를 둘러싼 꿈속의 세상이 단순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게 느끼게 해주었으며,
아름다운 색채와 향기가 있는 구름의 빛과 같은 형상들만 어렴풋하게 떠오를 뿐
꿈속의 천사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떠났습니다
눈을 떠 보니 눈부신 아침이었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꿈속에서 나를 찾아주신 음악의 천사님과
마음의 평화를 주신 천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꿈속에서 다시 뵙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일요일 새벽 아침을 맞습니다
가장 향기로운 아침을 맞습니다

*2008. 1. 13.

음악의 천사를 기다리는 기도

내 꿈속에서
마음의 향기를 남기고 가신
음악의 천사님
아름다운 음악을 꿈속에서 들려주신
천사님을 다시 만나게 해 주십시오

꿈속에서
어느 다른 별에서
천사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천사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목소리를 마음의 음성으로
꿈속에서 다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꿈속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마음으로 빕니다

*2008. 1. 13.

봄비 내리는 밤

봄비 내리는 밤에
아름다운 음악이
황홀한 봄 향기와 함께
들려온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는 화실에서
들꽃의 향기 담긴 시 구절을 읽으며
흘러간 추억의 음악을 듣고 있다
창가의 봄비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음악의 향기

조용한 이 화실에서
들꽃의 봄 향기가
내 가슴에 묻어온다

*2007. 3. 29.

어디로 가는가

버스를 타고
시내를 가고 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제각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살아온 인생의 삶이 있었고
저마다 기쁨도 슬픔도 있었겠지
모두가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다

모자를 눌러쓰고
길을 내려다보며
낡은 양복을 입고 걷는 노인
흰 머리에
빨간 저고리 입고
앞으로 구부러진 걸음으로
지나가는 할머니

등산복 차림으로
배낭을 메고 걷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차창 밖 도로를 지나가고 있다
거리의 간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면서
나는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안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
모두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2007. 3. 18.

차창 밖을 스쳐가는 아름다운 세상

기차를 타고
호남선 들판길을 달리고 있다

차창 밖에는
아름다운 시골 풍경들이
순간마다 스쳐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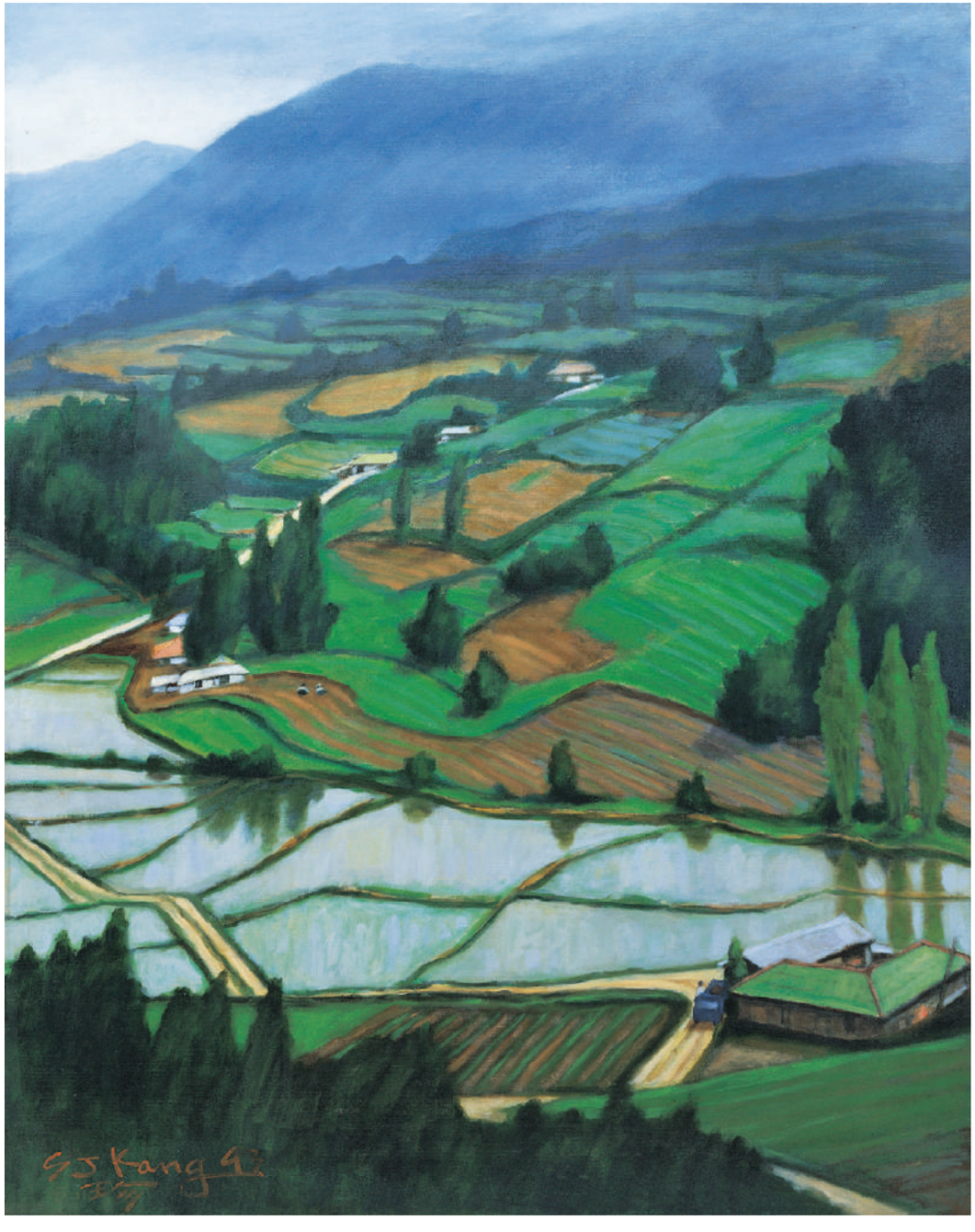
마을 앞 들판
오월의 무논에 비친 하늘
그곳에서 일하는 소박한 우리네 사람들
아름다운 풍경들이
순간마다 지나간다

어디론가 먼 곳으로 가는
저 들판 길 너머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이름 모를 시골 마을 풍경

그곳 마을마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가슴을 스치며 지나간다

*2007. 5. 5. 호남선 열차에서.

5
흰 구름 아래 산마을



흰 구름 아래 산마을

눈송이 같은
흰 구름으로 덮인
땅 위를 내려다본다

석양의 빛에 눈부시게 피어난
하얀 구름들
저 구름 사이로 내려다보이는
산과 들판
산비탈 작은 마을들

저 산 마을에는
소박한 우리네 사람들이 살고 있겠지

산비탈 밭이랑에서
일하며 사는 사람들
산새들과 나무들과 친구 되어
함께 살고 있겠지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석양의 햇빛에 눈부신
구름 아래로 보이는 산들
저 산기슭에
소박한 우리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어머니의 마음처럼
편안한 자연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2014. 12. 24. 동경 나리타공항에서 김포로 가는 기내에서.

오월의 전원

초여름 비가 그친 물안개 낀 들판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자연의 아름다운 숨결을 느낀다

모를 심기 전 파아란 이끼가 낀 무논에는 하늘이 비치고
수많은 생명들이 자연의 품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자연의 넓은 품속에서
오월의 전원 풍경을 그리면서
자연의 숨결을 화폭에 담고 있다
마음의 친구 자연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달리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기차를 타고
초여름 들판을 달린다
차창 밖으로
물안개 낀 비 내리는 들판이 바라보인다

녹색으로 물든 무논에서는
촉촉한 풀 내음새가 느껴온다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차창 밖으로
비 내리는 들판이 지나간다
꿈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지나간다
옹기종기 모여 있는 시골 마을
소박한 사람들의 삶의 향기가 풍겨온다

어린 시절
빗속에서 뛰어놀던
옛 추억이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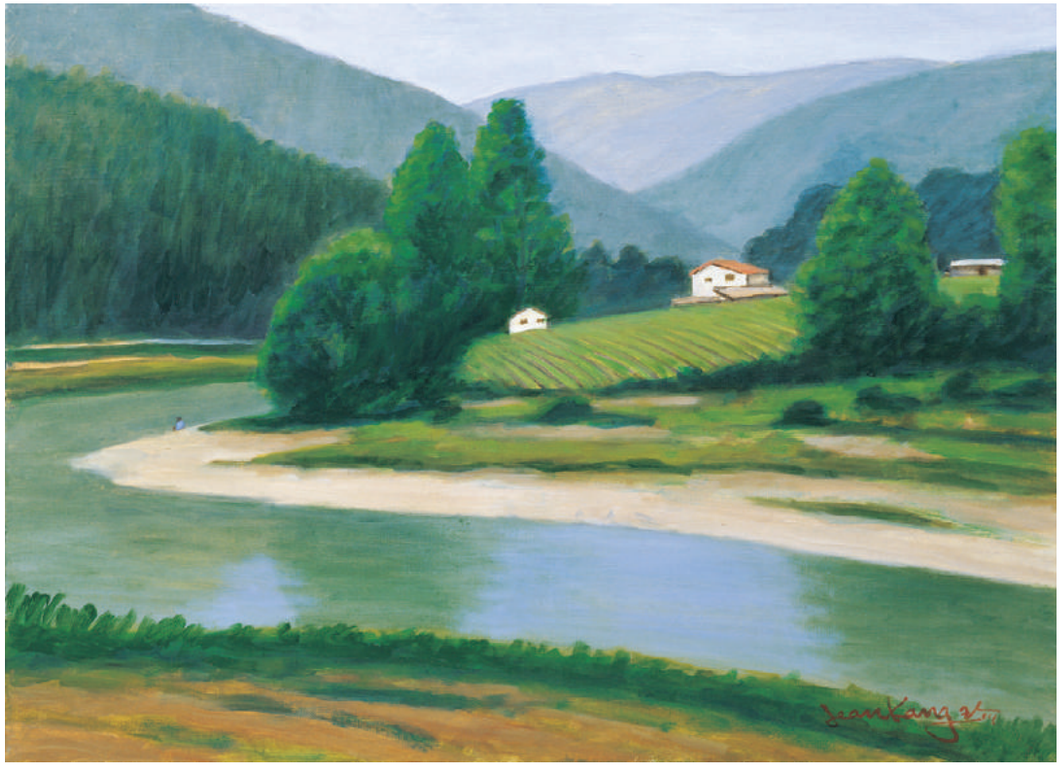
*2015. 6. 4. 부산행 열차에서.

풀벌레들의 합창

소나기가 그친
우면산 숲길에는
풀벌레들이 소리 내어
합창하고 있다

비 온 뒤
축축한 풀 내음새 가득 찬 산길에서
수많은 풀벌레들이
목청껏 외치는
저 합창 소리를 들으며
산길에 서 있다

제각기 다른 목소리로
외치는 풀벌레들
이 계절이 지나면
떠나야 할 그때를 생각하며
소리 내어 외치고 있다



봄을 기다리는 강변길

동강의 봄

물안개가 낀
남한강 강변길을 자전거로 달린다

강가의 밭이랑 길에는
이제 막 태어난
초록색 풀잎들이
생명의 향기를
봄 내음새를 풍겨준다

겨울을 보낸
강가 버드나무들
아직도 옷을 벗은
알몸으로 봄을 기다리는
강가의 나무들

물안개 낀 남한강
강변길을 달리며
자연의 따뜻한 품을 느낀다
자연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달린다

*2007. 4. 1.

폴란드의 시골길을 지나며

폴란드 옛 도시
크라코프의 교외
좁은 옛길을 차를 타고 달린다
끝없이 넓은 들판을 지나면서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농촌 풍경

멀리 바라다보이는
산비탈 밭이랑
시골 마을로 가는 들판 길
언덕 너머로 바라다보이는
폴란드의 농가집들
한 폭의 풍경화 그림처럼 내게 다가온다

시골 마을의 넓은 들판에서
갈대꽃으로 덮인
언덕길을 걷는다

풀밭 위에 피어 있는 작은 꽃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홀로 핀 들꽃을 바라본다
수줍은 작은 들꽃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이 작은 예쁜 꽃을 혼자 두고
먼 여행길을 다시 떠나야 했다

*2007. 6. 30. 폴란드 크라코프의 교외에서.

폴란드의 하늘 위에서

크라코프를 떠난
쌍발 프로펠러 비행기는
프라하로 날아가고 있다

창밖으로 내려다보이는
넓은 들판과 수많은 밭이랑들
순박한 폴란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은 농가 마을
한 폭의 시처럼 그림처럼 아름답다

언제 또다시 저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볼 수가 있을까
아쉬운 마음으로 폴란드 하늘을 날고 있다

발칸반도의 하늘을 날며 ESSAY

체코의 프라하를 출발한 터키 항공 여객기는 동구라파와 발칸반도의 여러 나라 상공을 지나 터키의 이스탄불을 향해 날고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지구촌의 아름다운 풍경에서 나는 잠시도 눈을 떼어 놓을 수가 없었다.

꾸불꾸불한 곡선으로 그려진 농촌의 들판과 목장들, 그 사이를 지나는 도로와 시골길과 마을의 집들, 비행기 속에서 보는 하늘 아래의 평화로운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다.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들판 위를 지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대지 위를 날면서 내려다보이는 들판의 풍경이, 조금 전까지의 곡선의 들판 풍경이 갑자기 직선의 밭으로 나누어져 있어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아마도 한때 사회주의 국가였었던 시대의 통일된 농지 관리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일까?

두 시간을 날아 발칸반도를 지나자 어느새 비행기는 흑해의 하늘을 날고 있었다. 이스탄불에 도착하기까지 두 시간 반 정도의 짧은 비행 시간 동안, 어쩌면 가장 많은 나라의 상공을 지나오면서 그들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대지의 풍경을 내려다볼 수가 있었다.

*2007.

터키의 형제들에게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터키
정든 옛 고향에 돌아온 마음이다

시골 아저씨처럼
구수한 터키 사람들
소박한 표정들

반갑게 나를 껴안으며
내 얼굴에 부비는
팔순 참전 용사의 턱수염
까칠한 턱수염의 감촉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터키 형제들의 정을
가슴으로 느끼며
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터키 참전 용사들과 함께한
이스탄불에서의 밤
한국전에 참전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지금도 꼬레아의 땅에 묻혀 있는
터키 젊은이들의 이야기에
가슴 아픈 밤이었다

20대의 젊은 청춘에
낯선 먼 나라
꼬레아에 와서
38선 너머 철의 삼각지에서
공산군의 따발총과 맞서
용감하게 싸웠던 그들

전사한 친구 전우들을
낯선 땅에 두고 온
그들의 가슴은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제 팔순의 할아버지가 되어
나를 부둥켜안아 주는
터키의 형제들이여

나는 당신의 눈동자에서
국경을 넘은
정을 느낀다

먼 이국의 땅에 묻혀
신혼의 아내 품에
돌아오지 못한
터키의 참전 용사들

당신은 아직도
꼬레아의 땅에 묻혀 있는데
유복자를 기르며
평생을 당신만을 기다려온
신혼 때 두고 온 당신의 아내
이제 칠순의 할머니가 된 지금도
당신이 묻혀 있는
꼬레아를 그리워하고 있다
당신을 잊지 못하는 눈동자로

살아생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국의 땅
먼 나라 꼬레아에 묻혀 있는
당신의 묘비를
가슴에 안아주고 싶다는
당신의 아내

20대 초년의 젊은 나이에
그녀를 두고 꼬레아로 떠났던 당신을
아직도 그리워하는
칠순 할머니의 얼굴에는
외롭게 살아온 한스러운 삶과
그리움이 남아 있다

*2007. 6. 터키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함께하면서…. 이스탄불에서.

네덜란드의 기차를 타고

물안개 낀
네덜란드의 들판 길을 달린다
기차를 타고

3월의 초봄
녹색 들판은
물안개로 젖어 있다
들판 길에 나란히 지나가는 나무들

넓은 초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젖소 떼들

내가 탄 기차는
작은 도시들을 지나
넓은 들판 길을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다
이름 모를 작은 농촌 마을들

한 폭의 풍경화를 보면서
기차를 타고
엔스케데를 향해 가고 있다

*2009. 3. 10.

이태리 토스카나 지방의 옛길을 달리며 ESSAY

이번 여행에서 이태리의 피렌체에 오게 된 것은 오랫동안 GE(General Electric Company)에서 함께 일했던 옛 친구 파올로 프레스코(Paolo Fresco)와 그가 살고 있는 피렌체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다. 프레스코는 내가 피렌체에 가면 자기 집을 나의 미술 작업실로 사용하도록 하라고 했었다. '플로렌스' 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던 이곳이 이태리어로 '피렌체' 라는 것도 이번 여행에서 처음 알게 되었으며 유럽의 르네상스 문화가 이곳 피렌체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사실도 이곳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

첫날 피렌체 공항에 나를 마중 나온 운전기사의 안내로 프레스코가 살고 있는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살고 있는 집이 가정 주택이 아니라 피렌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한 옛 성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태리의 상징인 피아트 회사의 회장직을 은퇴한 후 이곳 피렌체의 옛 성을 매입하여 살고 있었다. 내가 그의 집인 옛 성의 규모와 위치 때문에 놀랐던 것보다 더욱 나를 감탄하게 한 것은 피렌체에 체류했던 며칠 동안 엄청난 르네상스 문화유산을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세 유럽 르네상스 미술의 상징인 레오나르드 다빈치와 미케란젤로의 원작품들과 수많은 당대 유명 예술인들의 회화와 조각, 건축예술들을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중세기 종교 미술의

시대를 인간 중심의 문화와 미술 시대로 변화하는 르네상스 문화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을 후원한 당시 동서 교역으로 성공한 메디치 가문의 역할은 오늘의 피렌체가 이태리뿐만 아니라 유럽의 문화 중심 도시의 위치를 확고하게 한 것이다. 또한 피렌체 주변의 아름다운 이태리풍의 토스카나 지방을 순례하면서 현장을 스케치할 수가 있었던 것은 가장 추억에 남은 일이었다.

토스카나 지방의 산과 계곡과 언덕 위에 있는 포도 농장과 시골 마을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풍경화 구도였다. 이태리풍의 붉은색 지붕의 농장 마을의 집들, 산언덕 높은 곳에 있는 산마을과 계곡을 따라 있는 포도와 올리브 농장들, 마을 한복판에 있는 옛 성당, 그림처럼 아름다운 토스카나 지방의 풍경들이었다. 우리의 농촌 마을 풍경은 논과 밭이 있는 들판과 산 아래에 동네 마을이지만 이곳 이태리의 농촌들은 산비탈에 밭들이 넓게 펼쳐져 있고 들판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 높은 곳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이 있었다.

이번의 피렌체 방문은 오랜 옛 친구를 만나는 기회였지만 이태리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었다.

대자연의 품에서 1

요세미티(Yosemite)의
거대한 암벽 앞에서
하늘 위로 우뚝 솟은 암벽의 산을 우러러본다
높은 암벽 저 너머로
눈물이 고일 듯
깊고 짙푸른 하늘이 바라보인다

하늘 높은 암벽 앞에서
산비탈 키 큰 나무들과
암벽 앞에 서 있는 나는
대자연의 품 안에 있는 작은 존재

나를 둘러싼
요세미티(Yosemite) 계곡의
하늘 높은 저 암벽들
거대한 자연의 품 안에서
우리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다

사방을 둘러싼
거대한 암벽 속 숲길을 걸으며
위대한 대자연의
따뜻한 품속을 느낀다

땅 위 풀밭에 핀 야생화 꽃들
그 속에서 풀을 뜯는 큰 뿔의 사슴들
나무숲 사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검은색 곰들

위대한 자연의 품속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살고 있다
하나가 되어

*2007. 7. 4. 요세미티 자연의 품 안에서.

대자연의 품에서 2

요세미티(Yosemite)의 거대한 바위산
하나의 바위로 이어진
이 거대한 암벽 앞에서

자연의 넓은 품
거대한 자연의 편안한 품속에 안겨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

대자연이 창조한
위대한 모습
요세미티(Yosemite)의 넓은 품속에
내가 서 있다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

*2007. 7. 4. 요세미티에서.

홀로 핀 들꽃 향기

산비탈에
외롭게 홀로 핀 들꽃
아름다운 슬픔의 향기를 안고 있다
들꽃의 슬픔을
내 품에 안아 주고 싶다

슬픔을 간직한
들꽃의 향기
슬픈 아름다움

리리시즘과 에코토피아 정신을 품에 안은 강석진 시(詩)의 세계

— 강석진 시집『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평설

石蘭史 이 수 화
(한국문인협회 · 국제펜클럽 원임부이사장, 한국문학비평가협회 회장)

강석진 시(강석진 시인 · 화가의 詩)는 포스트 리리시즘(Lyricism, 서정적 태도)과 에코토피아(Ecotopia, 生態) 지향의 정신을 담은 서술시(敍述詩, Narrative Poetry)다. 가령, (행두 넘버는 평설자 에스터리스크)

①
어머니의 품 바위는
내게 오라는 손짓을 하고 있다

나는 절벽과 낭떠러지의 위험을 안고
가파른 바위 산길을 올라
어머니의 품 바위에 안겼다
언젠가는 오르게 되리라고 기다려온
인왕산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어머니의 품처럼 행복한
평안함을 느낀다

언젠가 때가 되어
이 세상과의 작별을 해야 할 때
푸근한 어머니의 품
인왕산 어머니의 품 바위에
영원히 안기고 싶다

—「어머니의 품 바위에서」후반

②
물안개 자욱한
새벽 산길
연분홍 진달래꽃이
혼자서 피어 있구나

낙엽이 쌓인
산비탈길 바위 곁에
외롭게 핀 진달래꽃

물안개 낀
이 산길에서
너는 나를 기다리며
바위 곁에
수줍게 피어 있구나

—「물안개 속 진달래」전문

예시(例詩) ①과 ②를 나란히 병치한 것은 ①과 ②의 서로 다른 포에틱스(Poetics, 詩學 · 詩論) 구분을 위해서다. 한 사람의 시인, 즉 강석진 시(詩)의 서로 다른 변별성을 보기 위함이다. ①은 에코토피아시(Ecolyrik, 生態詩)이고, ②는 리리시즘시(抒情詩)다. ① 에코토피아시란, 즉 생태시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지 않고 자연을 훼손하여 인간조차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저항, 길항, 예방하고자 하는 정신(주제)을 형상화(미학화)하는 시를 말한다.

이 에코토피아시, 즉 강석진 시(詩) ①은 그 메타텍스트 '어머니의 품'이란 바위에 "절벽과 낭떠러지의 위험"을 돌파해 올라가 앉아 "어머니의 품처럼 행복한/ 평안함을 느낀다"라는 리리시즘(서정적 태도)을 표명하는 바, 이는 시인의 마음의 지향감의 정지 상태 그대로일 뿐이다. 그러나 여기까지의 서정적(서정시) 태도에 결정적 시정신의 변화가 함께 표상되는, 즉 후말 5행에다 생중사(生中死)의 마지막 생(生, 삶)을 접을 때의 각오를, 그 지향성(志向性, Intentionality)을 분명히 한다. "인왕산 어머니의 품 바위에/ 영원히 안기고 싶다"라는 이 에이도스(存在轉移)의 원망사(願望詞)가 바로 자연에 합일하고자 하는 에코토피아 지향성의 시란 것이다.

이처럼 에코토피아시란 예시처럼 그 구조상 리리시즘과 에코토피아 스탠스가 공존하는 세계이다. 이와 같이 강석진 시(詩)의 서정시와 에코토피아시의 상호의존성(공존)은 텍스트마다 하나의 구조 속에 공존하거나 텍스트 각각의 형태 속에 따로따로 독립되거나 그것은 그 시인의 포에틱스 독자성에 따라 변별되는 바, 예시 ②가 서로 독립된 텍스트 중의 하나일 터이다. ②의 경우에서 리리시즘시, 즉 서정시의 전형성은 후말연 후말 3행간에 충만해 있다. 서정시가 시인의 총체적 존재론의 미학을 담는다 했을 때, 예시 ②의 후말연 후말 3행 "너는 나를 기다리며/ 바위 곁에/ 수줍게 피어 있구나"라는 레토릭(Rhetoric, 修辭學)은 서정시가 담지할 수 있는 대상(진달래=자연)에 대한 화자(시인)와의 일체감이 완벽하게 동일화의 경지로 표상성을 획득하는 절대적(絕唱) 계기가 되는 것이다. 소월(素月)의 「진달래꽃」은 김동리(金東里)의 정곡을 찌른 평가처럼 '청산(靑山)과의 거리(距離)'를 진달래꽃의 존재론적 절대 고독으로 본 것과 강석진 시(詩) ②를 내(평설자)가 시인과 진달래꽃(자연)과의 합일, 즉 자연과의 동일성 성취로 보는 것과의 차이의 미학인 것이다. 분리와 합일의 대극 사상(思想, 시정신) 차이이다. 어쨌든 강석진 에코토피아시와 리리시즘시 표정은 이로써 맑은 개울물 속 잉어 떼처럼 분명해졌으리라 본다. 이제 서정시를 예시 ②처럼 잘 갈무리한 강석진 포스트 리리시즘시가 예시 ①처럼 에코토피아시의 세계성을 획득하고 있는 바, 이 시집 『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포진한 그의 에코토피아시 세계로의 집중적인 평설에 접어들고자 한다.

언젠가 이 세상에서의 때가 끝나고
내가 왔던 별로 돌아가야 할 때

나는 이 지구별에서의 아름다운 추억과
이 땅에서 함께 살았던 그들의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내 손수 그린 화집 속에 담아 떠날 것입니다

먼 훗날 어느 먼 별에서
나는 내가 살아온 별 두고 온 산하를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나는 그림을 그립니다

—「내가 두고 온 산하(山河)」 후반

예시 「내가 두고 온 산하(山河)」는 강석진 에코토피아 시정신이 지향하는 유토피아 세계를 아름답게 표상하고 있는 전형적인 서술시(敍述詩, Narrative Poetry)이다. 8개 연에 달하는 호흡이 긴 구어체(口語體) 가락에 얹어 우주론적 공간과 시간상 화자의 존재전이 상황을 표상하고 있다.

그 시간과 공간은 '언젠가' 라는 시간과 지구별과 그가 지구별로 오기 위해 떠나온 어떤 별로 상정되어 있다. 시인(강석진)은 지구별에서의 때가 끝나면 그가 돌아가야 할 어느 별에서 만나게 될 친구들에게 지구별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박한 우리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했다. 이는 시인(강석진 화가)의 절실성의 에코토피아시 정신의 발현인 바, 인간의 리리시즘은 그 근원에 있어서 현실에 대한 결여 의식과 현실 삶의 모순에 대한 길항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진 존재자로서 욕망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강석진 시(詩)의 유토피아 지향의 에코토피아시 정신은 그 유토피아가 지구 아닌 우주의 다른 어떤 훼손 이전의 별을 상정하는 상상력의 미학으로 우리 앞에 현현(顯現)시켜주는 마술적 아우라(Aura)를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뛰어난 시적 미학을 확보한다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강석진 시(詩), 즉 에코토피아시는 예시에서처럼 지구별이나 우주의 유토피아 세계가 존재하는 어떤 '별' 을 노래하고 있듯 다분히 낭만주의적 미래 지향 시정신이 아닌가 회의하게도 되겠지만 사실 그것은 사실(Fact)이다. 유토피아 사상의 가치는 현실 비판이라는 부정의 원리와 규범의 제시라는 긍정의 원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반증으로 강석진 에코토피아시는 유토피아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그 세부의 다양한 표상 예시(表象例示)를 들어 살피기로 하겠다. 행두 넘버는 평설자의 몫이다.

①
우주의 마음을 따라
나는 이 지구별에 왔습니다
우주의 마음이
나를 이 아름다운 지구별로 보냈어요

… (중략) …

저를 이 지구별에 보내주신
위대한 우주의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의 마음에 감사하면서」 일부

②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
우리는 아름다운 지구별로 돌아오게 되었지
21세기 같은 시대에
아름다운 산하 한반도에서 태어나
우정을 함께하는 동행이 되어
한 시대를 함께한 엄청난 인연

어머님의 품처럼
따뜻한 우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준 천생의 인연으로
한 시대를 함께 살게 되었지

—「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일부

③
산마루 위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자연의 소리 듣고 있다

나뭇잎 스치는 바람 소리
산비탈 멀리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산새들 합창 소리

… (중략) …

눈을 감고 바라보는 세상
눈을 감으면
더 넓은 세상이 보인다
무한한 우주의 품을 느낀다

—「눈을 감고 바라보는 세상」 일부

예시 ①은 「우주의 마음에 감사하면서」, ②는 「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③은 「눈을 감고 바라보는 세상」이다. ①이 화자의 생물학적 태생을 우주의 마음이 그를 아름다운 지구별로 보냈다 믿고 있으며, ②는 화자가 전생의 인연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구별로 다시 돌아왔고 동반자들이 있었다는 마치 불교의 윤회설을 말하고 있는 듯한 내용이며, ③은 지구별 자연 생명의 온갖 소리를 통해 우주와 하나가 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자연과 마음의 소통을 하면서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강석진 시인의 정신세계는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에코토피아 정신의 바탕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연을 마음의 친구로서 사랑하며 대자연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공존하는 정신세계는 에코토피아가 추구하게 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불화(不和, 자연 파괴 · 환경 훼손)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보호와 자연 보호는 더 이상 인류사회의 이슈가 되지 않는 새로운 지구별의 시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에코토피아가 가야 할 방향이다.

강석진 시인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처럼 이 지구별에서의 때가 끝나고 그가 왔던 별로 돌아가게 될 때 지구별에서 만나 함께했던 정든 친구들을 언제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간절히 생각하고 있다. 그의 시에는 대자연과의 합일뿐만 아니라 우주와도 마음을 함께하는 드넓은 정신세계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예시 ①, ②, ③에 이것이 골고루

현상학적 판단 중지 기법을 통해 엄중하게 표상화(表象化)됐다. 이는 에코토피아 전 단계(자연 훼손, 공해 등의 판단 중지와 소거)로 보이는 바, 우리는 이 단계에서 매우 현명하게 대처한 세계적 시인 W. B. 예이츠의 경우를 볼 필요가 있다.

본래 신령(神靈)이나 마귀에 대한 미신이 짙은 켈트 민족 특유의 신화 · 전설 속에 성장한 예이츠는 프랑스 말라르메 등의 상징주의시를 접하고서 새로운 예술관 · 시론에 확신에 찬 신념을 가진다. 유명한 그의 시 「이니스프리 호도(The Lake Isle of Innisfree)」와 같은 낭만적 도피의 어조에서 벗어난 상징주의시 세계로 변화한다. 아일랜드의 마승(魔僧)이 전하는 신화를 소재로 한다든가, 그런 세계로 독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 같은 전설 · 신화 세계를 형이상(形而上) 세계의 실체(實體, 플라톤의 이데아)로 본 예이츠는 그 환상 세계의 중심점에 세계영(世界靈, Spiritus Mundi)을 상정한다. 이 세계영이란 오랜 세월 동인 인류의 의식 속에 흐르는 대기억(大記憶, Great Memory)에서 나오는 아키타입(原型) 이미지이다. 예이츠가 이 세계영을 중심으로 한 그의 환상 세계에 체계를 부여하고 그것을 『전망(展望, A Vision)』이란 책에 서술해 놓고 있다. 이 환상(幻想) 철학은 예이츠가 몽롱하고 추상적이며 막연한 초기 시의 색채를 버리고 긴장된 선명한 이미지를 간결하게 창작한 시풍(詩風)의 일대 개혁을 달성하게 한 중대학 전환기적 발전이었던 것이다.

이제 강석진 시의 우주론적 환상 미학도 예이츠처럼 신화적(神話的) · 전설적(傳說的) 아우라에 머물지 않고(시 「관음사 석불 앞에서 2」, 무당의 굿소리 · 마애불의 세계) 현실의 한복판을 응시한다. 언젠가 시인(강석진)은 우주의 마음이 바라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지구별의 모습과 다른 오늘의 지구촌 갈등과 환경 파괴를 보면서 그만의 에코토피아시로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런 시가 이번 시집 『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그 예각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학적 세계관으로의 변환 가능한 과제는 이 시집의 저 에코토피아 세계를 날카롭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미지로써 포착해 미학적으로 형상화해야 가능한 일일 터

이다. 결국 강석진 에코토피아시는 자연을 마음의 친구로서 사랑하며 대자연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함께 공존하게 되는 정신세계 이며, 지금까지 에코토피아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식 되어온 자연 파괴, 환경 공해에 길항하는 고발시라는 부정항을 혁파하고 미래 지향적인 진정성의 생태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인(강석진)의 다음과 같은 우주적 세계영이 투영된 시정신의 창작 실천화가 최선의 일이 아닌가 한다.

W. B. 예이츠와 같은 세계영의 포에지가 가득 찬 강석진 에코토피아시가 세계성을 띠고 있는 생태 · 생명주의 시 한 편으로 척박하게나마 『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시집 메타텍스트가 이 시에도 너무 매치돼 여기 각별한 독자와의 합독을 시집 출간의 축하와 더불어 향유해 보는 바이다.

먼 이국의 땅에 묻혀
신혼의 아내 품에
돌아오지 못한
터키의 참전 용사들

… (중략) …

살아생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국의 땅
먼 나라 꼬레아에 묻혀 있는
당신의 묘비를
가슴에 안아주고 싶다는
당신의 아내

20대 초년의 젊은 나이에
그녀를 두고 꼬레아로 떠났던 당신을
아직도 그리워하는
칠순 할머니의 얼굴에는
외롭게 살아온 한스러운 삶과
그리움이 남아 있다

—「터키의 형제들에게」 일부

예시는 휴머니티 넘치는 따스한 인간애의 송가(頌歌)다. 강석진 시인 · 화가의 인문학 정신과 미술 미학의 창조적 위일융합 정신이 아니면 창출되기 어려운 사상과 감정의 뛰어난 감수성 미학의 창출 결과물이다. 이 사상은 유토피아 사상이다. 20대에 이국 전선의 남편 전사 소식을 듣고도 평생을 그리워하며 그 꼬레아 전적지를 가보지도 못하는 이 인간한(人間恨)은 누구 탓인가. 이념이 빚은 인간 폭력의 최고악 결과인 것임을 강석진 에코토피아 시정신은 그 대안의 유토피아 사상으로 미학화해 놓고 있는 것이다. 현실 사회의 부조리와 악을 고발하여 사회(국제) 개혁 사상을 고취시켜주며,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통해 이상사회(理想社會), 즉 유토피아 사상을 실현하는 길, 그 역사적 진보와 창조적 바탕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다. 바로 저 『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로 표상되고 있는 강석진 에코토피아시 정신의 미학화, 그 역사 발전의 창조적 변증법일 터이다.

문학세계대표작가선

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강석진 시화집

인쇄 1판 1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1판 1쇄 2016년 1월 6일

지 은 이 : 강석진
펴 낸 이 : 김천우
펴 낸 곳 : 문학세계 출판부 / 도서출판 천우
등 록 : 1992. 2. 15. 제1-1307호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무학봉28길 6 금용빌딩 2F
전 화 : 02)2298-7661
팩 스 : 02)2298-7665
http://www.moonhaknet.com
E-mail : chunwo@hanmail.net

ⓒ 강석진, 2016.

값 30,000원

* 도서출판 천우와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저자와의 협의에 따라 인지는 생략합니다.

ISBN 978-89-7954-607-1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http://seoji.nl.go.kr)과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en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